

채용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2017.12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목차

I

블라인드 · 직무능력중심 채용

1. 경험이라는 진짜 스펙, NCS 8
2. 필요한 것만 준비한다.
Newly Challenging System, NCS 13
3. 내 일에 있어 최고가 되는 내일을 꿈꾸다 19
4. 공공기관 채용의 네비게이션 NCS
(Navigation for Career Searching) 23
5. 직무 역량 중심에서 취업을 외치다(블라인드 채용의 공정한
울림) 27
6. 취업 준비의 방향성을 제시하다! 직무능력중심시험(NCS) 31
7. Over-spec 그만! On-spec 오케이! 35
8.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39

II

청년인턴

1. 공(空)이 아닌, 공(公)을 굴리다 46
2. 도전이었던 인턴, 어두운 앞길의 랜턴 50
3. “제가 해 본 청년인턴, 당신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55
4. 농정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원(庭園)에서
농(農)을 펼치다 58
5. 내 생애 가장 뜨거웠던 4개월 63
6. 내 취준의 사이다, 청년인턴 67
7. 당신의 ‘노’가 되어줄 청년인턴 제도 71
8. 청년인턴, 나만의 강점과 취업의 확신을 주다 75

III

고졸채용

1.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82
2. 고졸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87
3. 처음이라는 설렘 92
4. 당신은 ‘틀린 사람’입니까? 96
5. 제 나이 스물, 저는 고졸입니다. 101
6. 유지경성-뜻이 있어 마침내 이루다 106
7. 고졸채용 수기 111
8. 내가 걷는 이곳이 나의 길 116

IV

지역인재채용

1. 경계와 벽을 넘어 지역인재로 도약! 122
2. 지역인재채용, 새로운 고향 울산에 머물게 하다 127
3. 메마른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한 세 가지 노력 131
4. 내가 바로 우리 지역인재 136
5. 나는 뽑히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지원했다 140
6. 지역인재로 입사 그리고 지역전문가로 성장 144
7. 지역인재 채용제도, 지역 청년들을 비추는 희망의 빛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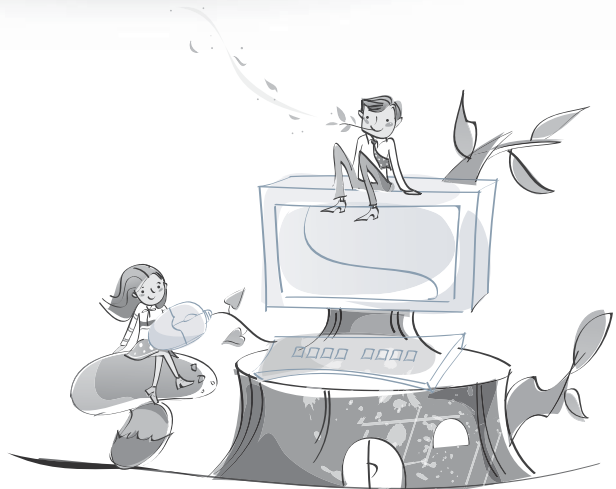
V

시간선택제일자리

1. 워킹맘이 행복한 일터 154
2. 나는 행복한 삼데렐라, 시간선택제 직원 158
3. 안성맞춤 시간선택제, 점점 좁아지는 시간선택제의 문턱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대책 필요) 162
4. 다시 시작하는, 선물 같은 날들 167

I

블라인드 · 직무능력중심 채용



1

경험이라는 진짜 스펙, NCS

최○○/한국콘텐츠진흥원

사람들은 말했다. “거기 가기 되게 어려울 텐데?” 디지털콘텐츠를 전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가고 싶어서.”라고 답하면 늘 돌아오는 대답이었다. 학벌도 좋지 않은 지방대생이 백일몽 꾸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다. 학교에서도 그랬고, 군대에서도 그랬고, 집안에서도 그랬다. 그냥 빨리 공무원 준비부터 하라는 말도 들었다.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그 흔한 자격증이나 토익점수도 없는 지방대생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대표 공공기관에 입사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내보이고 싶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입사했다.

신입생, 콘텐츠 산업의 동반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입사를 꿈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콘텐츠 산업을 총괄 진흥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산업분석, 정책개발, 제작지원 등 학계와 업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저변 확대, 질적 향상과 더불어 한류 열풍으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우리 콘텐츠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신입생 시절, 이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막중한 임무에 큰 매력을 느꼈다. 그때부터였다. 꼭 입사 해야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하지만 군대를 전역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입사를 준비하려니 난감했다.

진홍원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스펙을 얼마나 쌓아야하는지 전혀 알 길 없이 소문만 무성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황하는 영혼 앞에 NCS 채용방식의 출현은 길라잡이이자 구원이었다.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하지만 다소 불안한 마음을 안고 토익공부와 자격증 공부를 포기했다. 그리고 ‘실무’에 적합한 진짜배기 스펙을 쌓기 시작했다.

진짜 스펙은 점수와 종이가 아닌 ‘경험’

먼저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상발전소 기자단에 도전하기로 했다. 당시 유일한 경력이던 ‘상상발전소 블로그 기사 공모전’ 수상 이력을 살려 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6기 기자단이 되었다. 그토록 바라던 기관의 기자단이 되었기에 할 수 있는 한 가장 열심히 활동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좋아했던 콘텐츠를 모아 소개하는 기획기사와, 몇 차례씩 춘천과 서울을 오가며 작성하는 취재 기사를 매달 만들었다. 이 활동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몸소 체득할 수 있어 좋았다. 또, 진홍원에 입사하면 무슨 업무를 하고 싶은지 방향을 찾을 수도 있었다. 이는 또 다른 실무 경험을 쌓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춘천 인근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창의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두 기관에 우연히 취재를 간 적이 있었다. 그 곳에서 진지하게 콘텐츠 제작에 임하는 아이들을 보니 그 열정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 교육 보조강사’를 했다. 학부지식으로 아이들에게 미디어와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또 실제 방송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을 주강사로 모시며 일을 하니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점들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미디어 지식, 기술, 장비 운용 능력은 늘어났는데 아직 채우지 못한 갈망이 있었다. 바로 ‘행정업무능력’이었다.

지방에서 행정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다행히 보조강사로 일했던 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동계방학 현장실습을 제공하였고, 두 달 간 행정보조 업무를 경

힘해보았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두 달이었지만 행정업무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더불어 좋은 직원분들 덕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마음가짐도 배울 수 있었다. 그렇게 동계방학인턴을 마치고 마지막 학기가 개강했다. 간간히 보조강사 업무를 하며 전공과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공부하던 4월이었다. 친한 형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채용공고가 올라왔다고며 전화를 주었다. 자격증, 점수가 아닌 ‘경험’이 진짜 스펙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경험으로 빛날 수 있었던 NCS 기반 채용

모두 힘들어한다는 이력서를 마주했다. 다른 NCS 기반 이력서가 그러한 것처럼 한국콘텐츠진흥원도 개인 신상정보를 묻는 양이 상당히 적었다. 대신 입사를 위해 준비한 경험과 경력, 콘텐츠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 실무와 직접 관련 있는 항목이 많았다. 자격증이나 어학실력은 ‘우대사항’이긴 하지만 절대 가산점 대상은 아니었다. 따라서 자격증과 어학은 기입란이 있어도 반드시 기입할 필요는 없었다. 자격증은 공란, 어학은 8달 후 만료인 오픽 점수 하나만 적었다. 대신 경험사항과 경력, 콘텐츠 관련 교육 이수 항목은 빼곡하게, 칸이 모자라면 추가해서 채워 넣었다.

자기소개서도 ‘성장배경, 성격의 장단점’ 등 업무와 무관한 것을 묻는 일반 자기소개서와 달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입사하려는 동기와 구체적인 이유, 입사를 위해 준비한 사항, 인재상 부합 여부 등 ‘진흥원과 진흥원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에 즉각 투입 가능 여부’를 알고자 하는 질문이 특징이었다. 실무 중심적인 질문들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온 사람에게 더없이 편하고 유리했다. 그렇게 NCS 채용에 대한 믿음과 스펙이 없음에 대한 불안감을 함께 품고 서류를 제출했다. 다행히 믿음이 흔들리는 일은 없었다. 필기전형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온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공시험 없이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인성검사를 준비해야 했다. 과거 NCS가 도입되기 전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필기시험’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막막했다. 시중에 이를 대비할 교재도 전무하니 그 답답함을 더해

주었다. 하지만 표준화된 NCS 채용 도입으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이 수월하게 바뀌었다. NCS 기반 채용에서는 각 기관이 실무를 위한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중 어떤 능력들을 중점으로 생각하는지 채용공고문에 안내해준다. 이 5~6가지 항목만 공부하면 되니 필기시험 준비가 복잡하지 않아서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중학생 때부터 수포자였기에, 수리능력을 위주로 공부했다. 체계적으로 학습한 결과는 ‘합격’을 안겨주었다. 면접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다.

첫 정장을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 면접장의 분위기는 생각 이상으로 부드러웠다. 많은 취업 준비생이 걱정하는 ‘압박면접’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없었다. 또한 가족이나 학벌, 외모 등 ‘업무 외적인 질문’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대신 지원자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입사 후 목표, 가고 싶은 해외 사무소와 구사 가능한 외국어 등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 있는 질문들만이 면접장을 채웠다. 따라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그 사업에 애정이 있고, 이를 위해 현장에서 두 발로 뛰는 인재라면 충분히 양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면접이었다. 그렇게 면접을 마치고 약 일주일이 지난 4월 26일이었다. 9교시를 마치자마자 발표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마주하면 가장 기쁜 이름 석 자가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한다. “축하해! 어떻게 들어간 거야?” 대답은 늘 한결같다. “운이 좋았지.” 그렇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안 것도, 디지털콘텐츠전공을 선택한 것도, NCS 기반 채용이 도입된 것도, 기자단이 된 것도, 보조강사와 인턴을 한 것도 모두 어쩌면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운만 좋아서 입사한 것은 아니다. 운이 찾아와주면 항상 최선을 다해 경험을 쌓고 배우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원천은 ‘꼭 가고 싶다’는 열망과 ‘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니 즐겁다’는 마음가짐이었다. 이런 원천들은 NCS 채용 준비의 산물이라 생각한다. NCS 기반 채용은 단순히 종이로 끝낸 ‘스펙’을 쌓는 시간이 아니다. 입사 준비 기간부터 ‘능력’을 체득하게 해주는 기회다. NCS 기반 채용을 준비하며 배운 능력들은 행복한 직장생활을 누리는데 큰 자산이 되고 있다. 아버지 같은 팀장님과

다정한 팀원 분들이 일을 가르쳐주시는데, 열망과 믿음 그리고 마음가짐이 있으니 배우는 즐거움을 느낀다. 몸소 느낀바, NCS 기반 채용은 실무에 쓰임 있는 ‘진짜 스펙’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에 입사하고 싶은 취업 준비생들이 많을 것이다. 분명히 여기저기서 조언을 듣고, 저마다의 이야기도 다양하리라 본다. 많은 것을 듣기에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취업 준비생 여러분께 굳이 첨언하자면 ‘꿈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경험을 만들어 나아가면 원하던 결실이 맺히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싶다. 그 꿈과 열정을 응원한다. 여러분은 결국 성취할 수 있다. 

2

필요한 것만 준비한다. Newly Challenging System, NCS

김○○/공무원연금공단

들어가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입사하고 어느새 100일이 지났다. 엇그제만 해도 필기시험을 치렀던 것 같은데 8월 서귀포의 뜨거운 폭염이 가고 서늘한 바닷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다. 지난 100일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제 됐다”라며 나의 취업 소식에 떨 듯이 기뻐하시던 친할머니께서는 긴 시간 버텨온 암에 운명을 달리 하셨다. 정신없이 연달아 상을 치르는 와중에 공무원연금공단이 큰 힘이 되어주었다. 동기들, 선배들의 격려 한마디 한마디보다 더한 위로가 없었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마침 이렇게 나의 취업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만큼 공기업·공공기관 예비 입사자들이 이 수기를 읽으며 포기하지 않고 힘을 얻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바란다.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을 하지!

나의 경우는 따로 취업 준비를 오래 하지 않았고 학교 고시반에서 공부를 했다. 오랜 기간 공부했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고 더 이상 부모님께 책값, 생활비 등을 손 벌리고 싶지 않아 취업 쪽으로 눈을 돌렸다. 먼저 취직한 대학동기,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토익과 학점을 곱해 3,600이 넘지 않으면 대기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직장 취직은

힘들다는 것이었다. 고시공부를 하느라 학점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한 나는 토익과 자격증 공부에 시간을 쏟았다. 토익, 토익 스피킹, 컴퓨터 활용능력, 오픽, 재정관리사, KBS 한국어, 한국사능력검정, 각종 금융자격증 등 정말 많은 자격증 공부를 했다. 공부를 하면서도 스스로 의문이 들었다. 고시반에서 기계처럼 공부하고 외우던 지난날이 문득 떠올랐다. 나중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인지 아닌지 생각도 안하고 책 사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집에 와서 채점해보는 시험기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격증 시험에 미련을 놓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 불안감 때문이었다. 월요일 이른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는 친구도,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도 모두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나에게 밥 한 끼, 술 한 잔씩을 사주곤 했다. 그러나 나의 입장은 친구들과 정 반대였다. 겉으로 내색 한번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내가 취업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가끔씩 술 한 잔을 하고 온 다음 날이면 더욱 더 자격증 공부에 매달렸다. 불안감은 그렇게 나를 빗 한줄기 없는 터널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NCS가 뭔데?

그렇게 한창 자격증 공부에 열을 올리던 중 공공기관 채용에는 NCS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NCS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줄임말로, 다른 불필요한 스펙 없이 지원자를 뽑기 위한 채용시스템이다. 사실 처음 NCS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는 “또 준비해야 하는 건가?” “취준생들 부담을 덜어준다더니 다 거짓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펙 쌓기 바빴던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전부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읽어보니 나같이 상대적으로 스펙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NCS를 알게 된 후로는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대로 준비하던 자격증 따기를 멈추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무의미하고 쓸 곳 없는 자격증 대신 실제로 업무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각 공공기관마다 작년도 채용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기술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그렇게 나는 ‘진짜 필요한 것만 준비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NCS기반 채용

3, 4월이 지나고 벚꽃이 지자 5월이 왔다. 슬슬 날씨도 더워지고 나의 조바심도 달아오르던 그 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반기 신입직원을 모집했다. 경영학과에서 국가회계 과목을 가장 재미있게 공부했고, 그 중에서도 연금충당부채, 융자보조원가 등 일반적인 기업의 재무회계에서 볼 수 없는 구조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기에 내가 즐겁게 공부한 전공을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다.

▶ 서류전형

NCS기반 채용에서는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지원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무엇을 경험했는가에 더 중점을 둔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서류전형 또한 스펙보다 경험과 능력을 더 중시했다. NCS 기반 교육 기술서에는 대학생활을 하며 재미있게 배운 전공과목의 내용과 느낀 점을 적었고, NCS 기반 경험 기술서에는 마케팅학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모전에 나간 경험을 적었다. 수상을 하나도 못한 실패뿐인 경험담이었지만 공단의 직무와 밀접한 나의 경험을 적으면 됐기에 부담 없이 친구들과 열심히 토론하고 작업했던 일을 작성했다. NCS 기반 자기소개서에는 학회생활을 하며 대립되는 학회원들의 의견을 중재하려 노력한 경험과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적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서류전형에서 가장 신뢰가 갔던 부분은 평가 배점을 공개한 부분이었다. 20배수, 30배수 등과 같이 서류전형에서 선정하는 배수를 알려주는 기업은 많지만 세부 항목별로 평가 배점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곳은 흔치 않았기에 ‘정말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구나.’ 라는 인상과 함께 채용절차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었다.

▶ 필기전형

개인적으로 NCS기반 채용의 꽃이라 여기는 부분이 바로 필기전형이다. 지원자가 스펙만 엄청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를 필기시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기시험은 보통 NCS직업기초능력평가와 전공지식으로 나뉜다.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전공지식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 인재라는 것을 보여야 하고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통해 자신이 조직에 잘 적응해서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된 인재라는 것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전공지식은 평소 대학에서 공부한 부분을 복습하면 된다. 기업마다, 시험마다 난이도는 천차만별이지만 평소 꾸준히 공부하고 능력을 키운다면 다른 여러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오히려 자격증과 같은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전공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고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또한 나처럼 인턴경험이 전혀 없어서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험이 막막한 지원자를 위해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시중에 판매되는 NCS책을 풀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결재를 맡는 방법,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 등 실제 회사생활의 A to Z를 책으로나마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회사생활이 실은 우리 일상생활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 면접전형

총 3가지로 이루어진 전형 중 가장 많이 긴장한 것이 바로 면접전형이다. 원래 긴장을 잘하는 성격인데다 처음으로 회사면접을 보러가기에 긴장감은 배가 되었고, 막막함은 커져만 갔다. 나처럼 면접이 익숙하지 않은 지원자에게는 스티디를 추천한다. 몇 백에서 몇 천 명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하는 일을 짧은 채용기간에 혼자 파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면접에서 받은 질문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NCS 기반 자기소개서에 적었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단순 사실 확인 여부부터 꼬리를 잇는 질문까지 다양한 질문을 받았는데 진솔하게 나의 경험들에 대한 답변을 했

다. 채용 절차 중 나의 예상과 가장 빗나갔던 부분이 면접전형이다. 아마 많은 지원자들이 전공에 대한 심층적인 부분이나 스펙(영어말하기) 등에 대해 대비를 할 텐데 나 또한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나의 예상과는 달리 면접을 보고 난 후, NCS기반 면접전형이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단순히 “NCS기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전에 비해 뭔가 추가되어 더 힘들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해본 NCS기반 면접은 그렇지 않았다. 업무에 불필요한 스펙이나 학교 등에 관한 질문은 전혀 없었고, NCS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희생정신과 윤리의식 등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적은 지원자라면 면접전형에서 긴장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글을 마치며...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다. 4개월 차에 접어든 신입직원인 나도 그렇고 이 수기를 접하는 지원자 여러분의 취업 또한 그렇다. 이왕 찾아올 도전이라면 조금 더 공정하게,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치르고 싶은 것이 도전자의 마음일 것이다. 지원자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다면 불필요한 자격에 매달리기보다 진짜 회사에서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바란다. 나처럼 학점이 높지도 않고, 별 자격증 하나 없는 도전자가 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NCS채용 시스템이다. 스펙으로 줄을 세워서 지원자를 받았더라면 나에게서는 시험에 응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NCS채용이 Newly Created System(새롭게 창조된 시스템)에서 Newly Challenging System(새롭게 도전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태어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NCS를 통해 지원자들의 부담이 한결 덜어졌고,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시스템, NCS채용에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구직자가 아닌 새롭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구직자들이 직무관련 경험을 많이 겪을 수 있게끔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무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방학기간만이라도 오전 또는 오후로 단기 인

턴을 경험하게 해준다면 지원자들이 회사생활을 경험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일은 무엇인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도 청년 인턴제도가 있지만 인턴 일자리를 더 많이,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을 때 나처럼 불안해하고 막막해하는 지원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이를 통해 취업에 도전하는 신규 진입자들도 경험적인 측면에서 뒤처지지 않아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취업 노동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취업자와 취업 준비자들의 의견을 담아 NCS가 새롭게 도전하며 一新又一新(일신우일신)하는 채용절차가 되기를, 그리고 이 수기를 읽는 지원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바란다. 

3

내 일에 있어 최고가 되는 내일을 꿈꾸다

김○○/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만남

“너는 어떻게 취업을 하려고?”라는 말에 “취업할 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라는 대답을 하는 것도 점점 불안해지던 2015년 말, 계속해서 달려왔던 대학생으로서의 3년을 잠시 내려놓고 제가 시작한 것은 인턴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든 전공지식 외에는 아무런 목표나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던 저는, 수많은 지원 끝에 어색한 양복을 입고 증권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일을 하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 적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과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수십조 원을 넘는 기업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인 주식시장은 저와는 딴 세상 이야기 같았고 특별한 사명감이나 의미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보고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행한 안심전환대출의 의의와 결과가 담겨있었습니다. 평소 가계부채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담당 업무가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었던 저였기에 보고서를 읽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2015년 겨울, 한 보고서를 통해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민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공기업입니다. 또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과 함께 주택금융에 대한 독자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입사하여 주택금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NCS를 통한 나만의 능력 담기

그러나 난생 처음으로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것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학점은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 영어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같은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의문부터 어떠한 인재를 선호하고 조직문화는 어떠한지 같은 정성적인 부분까지 궁금한 것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5년부터 NCS 기반 직무능력중심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실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산업별, 수준별로 구분한 체계를 의미합니다. 실제 직무와는 무관한 서류상의 스펙싸움이었던 기존의 채용에 비해 NCS를 통한 채용은 지원자가 실제 기업의 직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역량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NCS채용은 좋은 학점도, 높은 영어성적도 가지고 있지 못한 저에게는 천금과도 같은 기회였습니다. 그 날부터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사를 위한 실질적인 능력을 쌓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용공고에는 모집분야 직무소개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뻑뻑한 글씨로 여러 전문적인 용어들이 적혀있는 직무소개서는 자칫 쉽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직무소개서는 지원자들이 하게 되는 직무는 어떤 일인지, 그리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능력과 태도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 직무소개서를 반복해서 읽으며 제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임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자신 있는 경험이나 성취라도 그것이 직무능력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과감하게 생략하였고 사소한 일이나 큰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경험이라도 그것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느

껴진다면 상세히 기입하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첫 관문이었던 서류전형을 통과하여 필기전형을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전형은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와 NCS 직무수행 능력평가의 두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는 흔히들 말하는 인적성 시험과 유사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직무와 무관한 3차원 도형 맞추기나 복잡한 추리문제가 당락을 좌우하는 보통의 인적성 시험과 달리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5개의 세부 항목(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수리능력, 직업윤리)에 따라 실제 직무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분야를 명확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NCS 직무수행 능력평가도 전공범위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핵심 업무와 연관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저는 약 1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핵심 업무와 뉴스 등을 꾸준히 찾아보았고 전공공부를 하면서도 관련 있는 부분들을 더욱 집중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필기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고 최종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면접전형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NCS는 필기전형까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면접관과 지원자가 대면하는 면접에서는 NCS를 이용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NCS를 기반으로 한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과정은 바로 면접전형이었습니다. 면접관분들은 제가 지원서에 쓴 직무관련 사항을 기반으로 해당 직무와 관련 지식을 깊이 있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입사 지원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상품인 주택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면접에서는 제시한 개선방안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위험성을 제시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에 걸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한 정책과 그 의미, 앞으로의 방향성을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면접에서도 직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가장 중요시되는 NCS의 취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2016년 하반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최종 합격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내 일에 있어 최고가 되는 내일

NCS를 통한 직무능력중심채용은 저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직무에 대한 적응력과 열정입니다. NCS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입사 후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그러한 직무에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업무와 조직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NCS와 다른 채용과정을 거친 몇몇 친구들이 입사한 후 상상했던 것과 다른 업무를 하게 되어 의욕을 잃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저는 NCS를 통해 지원 이전부터 제가 하게 될 업무를 알고 꿈꿔왔었기에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직무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우수한 자격이나 성적을 갖춘 지원자들을 제치고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직무능력의 중요성을 항상 명심하고 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꾸준한 직무능력 개발이 취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업무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NCS 직무능력중심채용을 통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입사한지 이제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제 책상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실무교본 4권이 가지런히 꽂혀있습니다. 선배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매일매일 공부도 하고 있지만 아직 업무를 할 때면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가끔씩 입사 전에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나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NCS의 모토는 ‘내 일에 있어 최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신입사원이지만 저는 NCS를 통해 ‘내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내 일에 있어 최고가 되는 내일’을 꿈꾸며 이를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일로 가는 길에 NCS가 제 앞을 밝혀줄 등불이 되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4

공공기관 채용의 네비게이션 NCS (Navigation for Career Searching)

지○○/(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합격이라는 최종통지를 받고, 입사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의 기억은 생생하다. 취업 준비는 누구에게나 기록하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30대 초반의 늦은 나이에 1년 반이란 무직기간을 갖은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살얼음 길을 걷는 느낌이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어울리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무작정 확률이 높은 기업과 직무를 선택하여 입사한 첫 직장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순간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항상 들던 시간이었다. 그때 내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NCS 채용을 대비하여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NCS 전형을 대비하며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작은 경험이 취업이라는 생존 경쟁에서 잠시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전한다.

인연이 된 한국가스기술공사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대전은 나와 그다지 인연이 있는 도시는 아니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집사람의 사촌들이 대전에 살고 있었고, 그 사촌 중 한명의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방문한 게 처음이었다. 당시 나는 첫 직장을 퇴직하고 돌아온 취업 준비생이었다. 처가 식구들의 직장 관두고 뭐 할 거냐

는 따가운 질문을 들으며 잔뜩 주눅이 든 채로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결혼식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려 신탄진 역에 가던 중 한국가스기술공사를 처음 보게 되었다.

아내와 같이 저기서 일하면서 살면 고단하고 팍팍한 서울 생활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대화를 나눴고, 그 일이 현실이 되어 지금은 아내와 올해 태어난 아이와 함께 대전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현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힘쓰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전략경영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

NCS 채용과정

거의 대다수의 공공기관 채용과정은 NCS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NCS는 구직자의 서류상 ‘스펙’보다는 ‘직무적합도’와 ‘문제해결능력’을 바탕으로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이전 직장에 취업하면서 취득한 토익 점수와 정형화된 면접 준비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비마련과 학업을 병행한 전쟁 같은 대학생활 덕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해외 어학연수나 공모전 수상, 자격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 서류전형이 나에게서는 좀 더 관대하다고 느껴졌다. 자기소개서의 많은 항목이 조직이나 단체생활을 통해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고, 첫 번째 직장에서의 실패 경험을 값진 인생의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서는 좀 더 진솔하게 타인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자신을 알리는 좋은 기회란 생각이 들었다. 서류를 제출한 모든 사람이 합격하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할 수밖에 없는 서류전형을 마치고, 불합격에 대한 불안 없이 NCS 직무기술서에 요구되는 필기전형의 과목을 준비 할 수 있었던 점도 집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경제·경영·회계·상법 등에 대한 전공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기시험은 문제의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지만, 다른 기업의 인적성 전형에서 경험한 내가 맞게 풀었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는 IQ 테스트 문제들보다는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적어도 준비와 연습을 통해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고, 내가 왜 탈락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한 공부가 부족 했는지를 확실히 되짚어 볼 수 있다는 점도 NCS의 필기전

형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필기전형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수험자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내가 합격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노력한 시간을 곱씹으며 자신감을 되찾고, NCS 사이트의 직무기술서 별 요구지식 항목을 짧은 시간 동안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부한 점 덕분에 합격 할 수 있었다.

쉽지 않았던 필기전형을 거쳐 마주한 마지막 난관은 면접전형이었다. 면접전형은 극도의 긴장상태였기 때문에 그 날 받았던 질문들이 아직도 영화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점은 나를 제외한 모든 지원자가 여성이었다는 점이다. 면접경험이 나이 덕분에 제법 있었던 나는 NCS가 정말 공정한 전형이라는 것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면접경험에서 지원자 성비가 남자 3, 여자 1이라고 확인했던 나에게 여자 4명에 남자 1이라는 성비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다.

알게 모르게 우리사회는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존재하듯이 여성 구직자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었고, 기회조차 공정하게 갖지 못하는 취업시장의 상대적 약자로 생각해 왔는데 반대의 입장이 되다 보니 좀 더 긴장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래도 면접 첫 질의 내용이 직장생활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면서 성과를 내며 좋은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을까를 곱씹던 나에게 상대적으로 답변하기 쉬운 질문이었다. 다른 지원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동일하게 표현할 때, 조직관점에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여 협의를 하게 하거나 서로의 이해관계를 일치 시키는 점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을 표현한 점이 다른 지원자와 차이를 만들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다행히 첫 질문을 통해 면접관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듣게 되었고, 자신감이 생겨 이어지는 토론 면접에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었고, 배려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한 점도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천신만고 끝에 면접전형에 합격한 후에는 3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비로소 정규직원이 되었다. 처음 직장생활의 실패 후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입사원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 나는 다시 한 번 소중한 기회를 준 회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고, 열정과 의욕이 오히려 이전 직장에서보다 한층 더 향상되어 있었다. 또한 좋은 선배들과 동료들을 만난 덕분에 OJT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최우수 멘티 신입사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까지 얻을 수 있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3개월이라는 짧은 인턴기간에도 신입사원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직무관련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덧 업무에 적응하여 한 사람의 몫 이상은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취준생의 노력을 가장 잘 알아주는 취업전형, NCS

‘스펙’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라는 구호를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접해 봤을 것이다. 대다수의 취업 준비생들이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나는 직무경험이 없는데 저건 또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지? 또는 취업경험이 있는 중고 신입만 유리하겠군.’ 이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전에 세무관리라는 잘 적응하지 못한 직무에서 경영기획이라는 나에게 맞는 옷을 찾게 된 나로서는 그다지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이다. 물론 이전 직장에서의 사회생활 경험은 분명 내 인생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지만 이번 취업의 결정적인 성공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NCS가 오히려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구직자가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구직자가 삶이란 인과의 통장에 어떠한 노력들을 적립하고, 어떠한 경험들을 쌓았는지를 가장 잘 확인해주는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하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꼭 원하는 기업에서 인정받으며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5

직무 역량 중심에서 취업을 외치다 (블라인드 채용의 공정한 올림)

이○○/시청자미디어재단

국립국어원은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00~500여 개의 신어를 발표해왔습니다. 신어는 그 시대의 사회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 매년 선정결과는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2004년 국립국어원은 신어 자료집에 ‘스펙’이라는 말을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 그 말은 현재 대한민국 청년의 발목을 잡아끄는 무시무시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2012년 예비군으로 돌아온 대학 3학년, 저 또한 선배의 따뜻한 조언과 충고로 취업을 위한 ‘5대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벌, 학점, 자격증, 토익, 인턴 등으로 정리가 되었던 5대 스펙은 얼마 가지 않아 8대 스펙이 되었고 그 양상은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공부와 스펙 쌓기를 병행하기 힘들어 휴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졸업은 멀어지고 취업 준비는 길어져 갔습니다. 졸업을 앞둔 2014년, 하반기 공채에 30여 개의 기업과 기관에 입사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불합격. 변변치 않은 스펙 때문이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나비 같았던 저를 멈추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동고동락한 선배가 방송국 촬영 기자로 취업체 학교를 방문했고, 후배 몇 명을 모아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 실력을 쌓아라.”

그 말을 듣고 혼란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

은 실력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동안 어학 공부와 자격증 준비가 손에 잡히지 않았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져 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2015년 2월, 변함없는 취업 준비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 일은 먼저 시민을 위한 일이어야 했고, 미디어 교육과 지원을 수행하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정한 후 기관 조사를 시작했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5년 하반기, 시청자미디어재단 공개채용에 입사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짧은 준비 기간으로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재단에서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 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직접 수강하고 90시간의 ‘미디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면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센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갔습니다. 2016년 2월, ‘미디어 교육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소속 보조강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유학기제, 거점학교, 상설교육 등에서 미디어교육을 진행하며 현장성을 익히고 스스로 미디어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고민해보기도 했습니다.

그해 9월, 시청자미디어재단 하반기 공개채용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스펙 쌓기를 내려놓고 직무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쌓아 온지 1년, 두 번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방대 출신, 화려하지 못한 스펙이었지만 시청자미디어센터 직무만큼은 잘 이해하고 있다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3개의 질문, 3분의 답변으로 면접은 끝이 났고, 결과는 최종 불합격. 눈물이 났습니다. 광고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취업 준비생의 눈물이 저에게도 흘러내렸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현실을 마주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부족한 게 무엇일까, 불합격의 이유는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2016년 한해가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기회는 또 한 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비록 기간제 계약직 채용이었지만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행정실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입사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스스로 기간제 비정규직이 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게다가 당시 살고 있던 부산을 떠나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가야한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후회하지 않겠다며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입사 지원할 수 있었고, 결국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1년 계약직으로 드디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직원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어떤 직무능력이 중요한지 직무분석을 할 수 있었고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며 체계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 등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에 세 번째 입사 지원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채용 과정은 직무능력 중심의 역량평가였고, NCS직무평가는 단순 계산능력과 이해능력이 아닌 직무 중심의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면접 과정은 NCS기반 토론 면접과 인성 면접 2가지 유형으로 나눠 개별 진행되었고 보다 심층적으로 직무역량을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직무와 무관한 출신 지역, 학벌, 가족관계 등이 면접 전과정에서 배제되는 블라인드 채용 과정은 지원자에게 큰 신뢰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면접관들은 더욱 지원자의 인성과 직무 적합도 및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의 도전에서 기른 자신감과 미디어 교육 보조강사로 익힌 교육 현장의 경험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근무하며 함양한 직무 능력과 기술, 태도 등을 바탕으로 채용 과정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시청자미디어재단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 후 업무를 수행하는 지금까지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시 NCS기반 직무평가 및 블라인드 면접 준비 자료입니다. 기초 공문서 작성법, 공문서 바

르게 읽기 등의 자료는 신입직원인 저에게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후배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 ‘스펙’이라는 말이 신어로 등록되고 난 후 학벌, 출신 지역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포함되는 ‘스펙’이 청년 구직자들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재 채용 기준이 직무능력으로 바뀌고 직무와 무관한 정보들이 채용 과정에서 배제되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조금씩 청년들은 ‘스펙’이라는 족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스펙 위주의 취업 준비에서 벗어나 적성을 찾아 직무능력을 함양했고 결국 직무능력 중심으로 변화하는 채용 시스템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었던 3년간의 취업준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청년실업 역대 최악’이라는 보도가 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명절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한다는 청년들의 인터뷰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앞으로는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이 확대되어 청년들이 적성을 고려해 직무능력을 함양하고 그것을 인정받아 공정한 경쟁에서 당당하게 취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

취업 준비의 방향성을 제시하다! 직무능력중심시험(NCS)

우○○/한국수자원공사

고(高)스펙을 위해 자격증, 토익 시험 날짜로 캘린더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을 취업 관문의 후배들에게 ‘취업 준비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난 취업 준비과정을 되새겨보며 이번 공공기관 수기를 시작한다.

NCS, NCS, NCS가 도대체 뭐지?

먼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NCS시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 시험), 말 그대로 실제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능력을 국가가 표준화한 시험이다. 문제집을 통해 NCS를 접해본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NCS 문제들은 일반적인 회사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문제화하였다.

여기서 NCS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NCS가 실제로 회사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NCS랑 회사일이랑은 무관하지 않는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의견이며, 나 또한 실제 회사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상관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NCS는 직무기술 표준 시험이 아닌 직무능력 표준 시험임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주어진 시간 내에 성과를 도출해야하는 회사의 성격과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정확히 풀어야하는 NCS의 성격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직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

며, 오히려 준비하고 오랜 시간을 통해 습득하는 기술을 평가하는 기존의 시험보다는 ‘사람’을 평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는 NCS시험을 ‘꽤 괜찮은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탈 스펙+블라인드면접=한국수자원공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2015년부터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채용전형을 실시해오고 있다. 서류전형에서는 일정점수의 어학점수를 제외한 학력, 전공, 경력, 자격증을 기입하지 않으며 채용인원과 무관하게 일정 기준을 통과한 모든 지원자에게 필기전형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는 곧 서류전형 통과를 위해 무리하게 스펙을 쌓아온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 역시도 취업을 준비하며 스펙에 대한 큰 부담감이 있었지만, 한국수자원공사를 목표로 마음먹으며 의미 없는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 NCS시험이나 다른 직무관련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

‘블라인드 면접’은 말 그대로 면접관에게 나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면접을 의미한다. “설마, 아무 정보도 가지 않을까?”, “말로만 블라인드 면접이지 뽍을 사람 정해져 있을거야!”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공사에서는 서류전형에서 학력, 전공, 경력, 자격증을 입력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과는 상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면접 진행과정 중에는 ‘내 이름’이 아닌 ‘000번’의 명찰을 받았으며, 면접과정에서 나에 대한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스펙’이 아닌 ‘나’를 평가 받을 수 있었고 지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넌 어떻게 취업을 준비했는데?

이제부터 본문으로 들어가 내가 한국수자원공사 취업을 준비한 과정을 말하고자 한다. '17년 상반기 한국수자원공사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나는 '16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였다. 학교에선 토목을 전공하였고 내가 가진 스펙은 졸업 요건이었던 ‘토목기사’ 자

격증과 ‘800점’이 조금 넘는 토익점수가 전부였다. 아마도 스펙만을 보자면 대부분의 기업의 채용과정 중 서류전형에서 ‘탈락’을 했을 것이다. 취업 준비를 시작하며 고민을 하였다. “토익 점수를 좀 올려볼까?”, “요새 다들 한국사 공부하던데... 나도 한국사를 좀 해볼까?”,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은? 어학연수는?.....”. 내가 내린 결론은 “의미 없는 스펙 쌓기는 싫어!”였다. 대신에 선택과 집중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한 목표 설정에 중점을 두었고, 평소 관심이 있었던 수자원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택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수자원공사는 ‘스펙’보다는 ‘직무능력’을 중점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무리한 스펙을 쌓기 보다는 직무능력에 초점을 두고 취업을 준비하였다. 취업의 준비는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하나는 NCS, 하나는 회사에 대한 관심이었다.

NCS의 경우 주어진(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것이 중요했다. 준비는 스터디를 이용하였다. 주변의 친구들 중 나와 같은 방향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모아 NCS 스터디를 조직하였다. 토목, 기계, 전기, 경영, 경제 등의 여러 전공의 구성원을 조직하였다. 서점에서 시중 문제집을 구입하여 매주 2회 2시간씩 모여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실전형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전공을 구성한 이유는 NCS과목의 특성상 이공계에 더 유리한 과목, 인문계에 더 유리한 과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드백 과정 중 문제 대한 접근의 다양화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NCS 시험만큼 중요한 것은 ‘면접’이다. 필기합격 후 면접을 준비하게 되면 짧게는 3~4일, 길게는 1~2주간의 시간 안에 모든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 나는 사실상 이 기간 안에는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기사나 보고서 등을 항상 관심 갖으며 스크랩 했다. 수자원공사 홈페이지나 공사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 그리고 신문기사들을 매일 같이 찾아보며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과정들은 내가 면접을 준비하며 조금 더 수월하게 하였으며 깊이 있는 면접

준비를 가능케 하였다고 생각한다.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성취하라

취업을 준비하기 전 읽었던 데일 카네기의 『인간경영리더십』이란 책에서 따온 글귀다. 나의 경우 실제 취업 준비기간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목표하는 회사를 분명히 하였고 그 회사에 부합하는 취업 준비를 하였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 하였고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막연함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군중에 휘말려 자신의 목표를 찾지 못하는 취업 준비생이 많다고 생각한다. 무리한 스펙을 쌓아가며 회사에 대한 정보나 목표 설정 없이 헤매지 말고, 자신이 목표로 한 회사에 집중 하라는 말이다. 목표 설정을 한 뒤 구체적으로 길을 그리고 취업 준비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돌고 돌아서 종착역에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목표를 세우고 최선의 길을 찾아 원하는 목표를 이루길 응원하며 글을 마친다. 

7

Over-spec 그만! On-spec 오케이!

노○○/한국조폐공사

수많은 탈락과 좌절 끝에 공기업에 취직한 저로서, 같은 심정일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제 이야기를 남깁니다.

무조건 달리기만 해서 실패했던 취업

건축공학을 전공한 저는, 남들보다 전공분야에 있어 다양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군 생활을 시설대대 기술계에서 근무하며 부대 내의 모든 관공사를 발주자의 입장에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보조했었습니다. 또한 사기업 건설회사에서의 인턴경험과 건축 관련 공모전, 해외교육, 자격증 등을 갖춘 채 처음으로 2015년 하반기 취업시장에 뛰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서류탈락, 인적성 검사 탈락, 면접탈락을 경험하며 제가 느낀 점은 나의 능력보다는 학벌과 스펙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직무관련 능력이 강점이었던 제게 ‘봉사활동 시간이 왜 없나요, 아버지는 어느 회사에 있나요?’라는 질문들은 더는 직무능력을 검증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답을 못 찾은 채로 하반기 취업은 실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자는 학벌과 스펙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에 동의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의문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직무를 잘하는 능력은 검증하지 않고

왜 스펙만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은 채 다시 2016년 상반기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처음 국가직무 능력표준 즉 NCS를 알게 되었습니다.

NCS와의 첫 만남

사기업만을 준비하던 제게,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을 최소화하고 단순 지식측정의 인적성 시험이 아닌, 실제업무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는 NCS 채용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NCS 기반 채용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때부터 공공기관 취업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제가 가진 직무관련 강점이 잘 발휘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채용사이트에서는 직무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각 채용분야에 관한 기초역량 및 직무능력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영어점수만 올리기에 급급했던 저에게 NCS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저는 먼저 직무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시설관리 직무로 목표설정을 한 후, 수행 시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공부하고 이를 나타내줄 저의 경험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IQ 테스트 방식의 인적성 공부를 탈피하고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등과 같은 실무적인 NCS 평가 공부도 꾸준히 병행했습니다. 면접 준비 역시 성격 취미 등을 물어보시던 기존의 면접과 다르게 직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정확한 목표설정과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취업 준비를 진행하니 더 이상 취업 준비가 막막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 준비를 6개월 동안 열심히 한 후 2016 하반기 취업시장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나의 직무역량을 알아준 NCS

공공기관의 시설관리 직무를 집중으로 직무능력소개서(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기존의 사기업과는 다르게 모든 서류전형에서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했던 직무관련 사례들을 구조화하여 작성하는 연습을 수개월동안 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문인 필기시험(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는 사기업의 IQ테스트 인적성과는 다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범위하던 기존의 사기업 인적성과는 다르게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와 같이 어느 정도 공부할 내용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준비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NCS 기반 직무중심 역량면접에서는 ‘얼마나 내가 이 직무를 잘 해낼 수 있는지’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드린다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영향력, 학교, 높은 토익점수가 판단기준이 아닌, 직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을 뽑는 것이 NCS 채용의 주요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각 단위에서 구성요소마다 다른 기초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역량을 어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준비를 통해 저는 2016 하반기에 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NCS는 내 강점인 직무역량을 잘 알아주고 최종합격의 기쁨을 알려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Over-spec 그만, On-spec 오케이!

NCS 채용은 기존의 학벌과 스펙 위주의 채용에서 벗어나 직무능력을 검증하여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의 해당직무를 정확히 알고, 이에 관련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때문에 지원직무에 대한 업무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며 이직비율은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점점 NCS기반의 채용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기업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이며 이는 앞으로 채용시장을 선도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NCS를 활용해 영어점수와 대외활동 같은 스펙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자신의 강점과 매치되는 분야를 찾아 구직활동을 펼친다면 성공적인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더 이상 오버스펙(Over-spec)이 아닌 온스펙(On-spec)으로 능력중심 채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NCS 기반으로 입사하여 일을 배우고 있는 저는, 입사 전 제가 담당하게 될 직무를 확실히 알고 지원했기 때문에 매우 흥미를 느끼고 매일을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NCS 채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문제점도 모르는 채 스펙 쌓는 데만 열중하지 않고 방향성을 찾고 취업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채용시장 중심에 있을 NCS를 남들보다 먼저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난속에 많이 힘들어 하는 젊은 청춘들을 위해 힘내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청춘 화이팅! NCS 파이팅! 

8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하○○/한국주택금융공사

학교 도서관과 각종 스터디룸, 필기 시험장을 오가며 불안한 현실을 마주하던 생활이 어느덧 조금씩 잊혀져가는 요즘이다. 끝을 알지 못해 달리던 터널도 결국 끝이 있었고, 이제는 새로운 조직과 풍경 속에서 또 다른 페달을 밟아가고 있다. 그토록 원했던 목표를 예기치 않게 짧은 시간 내 이루긴 했으나, 누군가에게 합격의 비결을 알려준다거나 희망고문 같은 조언을 해줄 만큼의 자신감은 점점 빛을 바래가고 있다. 다만, 오늘도 그 어딘가에서 취업이란 고개를 넘으려 고군분투하고 있을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간 스스로 경험하고 느꼈던 직무중심채용의 기억들을 재구성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려와 기대의 엇갈림

2015년 NCS 기반 채용전형이 공공부문에 새로이 도입되고 문재인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전격 시행하면서 채용방식의 공정성 문제는 줄곧 화두가 되어 왔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은 지금까지 채용에 개입해 차별을 야기한 연령, 학벌, 학력 등을 배제하여 취업준비생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발현되었다. 특히 직무능력과 무관한 이른바 ‘과잉스펙’을 양산하지 않고 해당 직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과 희망찬 기대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 현장에서 느껴지는 불안함은 그와 결을 달리한다. NCS 기반 채용이 다소간 빠르게 도입되었던 탓에, 그

간 학력, 학점, 공인성적 등 다양한 취업스펙에 집중하던 이들에게 혼란과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에 대한 정부정책의 취지는 분명하고 시의 적절했지만, 오랜 기간 기존의 방식대로 준비해오던 이들은 새로운 가시밭길을 당면한 것과 다름없었다.

나 또한 그러했다. 사회과학계열 대학원 졸업 이후 진로의 방향을 전환했던 나는 적지 않은 나이에 어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상태에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스스로를 꽤나 경쟁력 있는 지원자라 자부했던 착각도 잠시, 직무와 연관된 이력(교육, 경험, 경력, 금융자격증 등)은 전무했고 새로운 채용방식에 대한 정보도 발 빠르게 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말 그대로 대학교육과 사회수요 간 ‘미스매치’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 자조 섞인 한탄만 할 수밖에 없던 실정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입사하기까지

이렇듯 앞날에 대한 우려와 희망이 반복되던 차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에 합격했다. 그리고 약 3개월 간 이어진 공사의 채용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직무중심채용의 진정한 의미와 필요성을 가장 극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공사는 채용설명회에서부터 서류, 필기, 면접 전형, 그리고 합격 이후 연수에 이르기까지 직무역량에 중점을 둔 채용방식을 체계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 중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채용설명회를 ‘재밋지에 강좌’라는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한 점이였다. 여타 채용설명회처럼 해당 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조건과 인재상, 합격 팁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찾아가는 나는 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소속 박사님께서 부동산시장의 작동원리와 공사의 역할을 설명하시는 모습에 어리둥절했다. 연이은 강연도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의 주요 사업과 실무를 안내하며 지원자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많은 지원자들이 ‘묻지마 지원’의 강박을 느끼는 참혹한 실정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노력은 자신의 직무적성과 흥미를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어쩌면 챗바퀴처럼 굴러가는 일련의 채용 절차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이곳에 합격하면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질문을 스스로 제기해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이후 서류전형에 준비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는 다소 달라졌다. 이전까지 여타 다른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적어 내려갈 때만해도 직무기술서와 공식 홈페이지를 대략적으로 탐색하고 스스로를 해당 기업의 인재상에 기계적으로 끼워 맞추기 일쑤였다. 반면 공사의 서류전형에 임하면서는 실무수행을 위한 나 자신의 역량과 장단점, 향후의 커리어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는 특히 공사의 자기소개서 항목이 업무개선방안 및 세부업무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기계발 계획 등과 같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자의 이야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사전 기업분석을 보다 면밀하게 진행하여 서류전형에 임했다. 공사의 업무 현황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여러 자료를 살펴보았다. 또한 공사가 당면한 여러 이슈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보기도 했다. 이렇듯 구체적인 고민과 분석이 기존 경험에 대한 이야기에 더해져, 한 명의 지원자로서 나 자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개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공사가 이렇듯 서류전형에서 요구한 직무이해도는 이후 필기와 두 차례 면접전형에서도 연속성 있게 다루어졌다. 필기전형 중 객관식 시험은 공사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금융경제 기초이론, 주택금융상품, 최근 이슈 등이 출제되었고, 주관식 서술형 또한 공사가 최근 출시한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 관련 건전성 리스크 해결 방안이 논제로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의 면접에서도 자기소개서에서 밝힌 업무개선방안이나 직무지식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면서, 지원자의 직무이해도와 업무수행능력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때문에, 비록 직무 관련 교육이나 경력이 부족한 이들도 사전에 공사의 업무를 정확히 공부하고, 그와 관련된 경제학적 이론과 지식을 축적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절차였다고 생각했다.

직무능력중심채용에서 ‘능력’이란

3개월의 채용과정을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그토록 막막하고 희미해보였던 직무능력중심 채용의 의미는 어쩌면 간단한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특정 자격증이나 어학성적과 같이 수많은 취업준비시장이나 학원가에서 권장하고 때로는 조장하기도 하는 양적인 스펙들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희망하는 기업이 어떤 존립근거와 미션 하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깜깜이 채용’이나 ‘제3의 스펙을 양산’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해당 기업의 중점 사업과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미래의 직원을 뽑고자 함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각자의 정체성을 다양한 기업의 상황에 맞춰 계발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나의 경우를 보아도 그러하다. 취업이 ‘지상 최대의 과제’인 세계에 뛰어들 것이 고작 8개월 전이었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기업들의 세부업무와 역할을 살펴보았지만 그저 외부자의 시각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바라보는 것에 불과했다. 이후 공사에 입사하여 주택금융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업무를 접하면서도, 취업준비 시절 표상한 것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는 일들을 하루하루 수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어쩌면 나와 같았을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두려워말고 직무 능력과 지식을 열심히 갖추어라’는 식의 희망적인 수사를 쉽사리 늘어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확신을 가지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직무능력중심 채용의 취지와 회사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양적인 스펙을 쌓지 못한 이들도 충분히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결국 새로운 채용방식이 원하는 직무능력이란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몰입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직무기술서와 모듈을 개발해 필요지식과 역량의 측면에서 채용 기준을 정립할 때, 지원자가 단순한 1인칭 시점이 아닌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고려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한 달간의 연수 과정과 현업 배치 후 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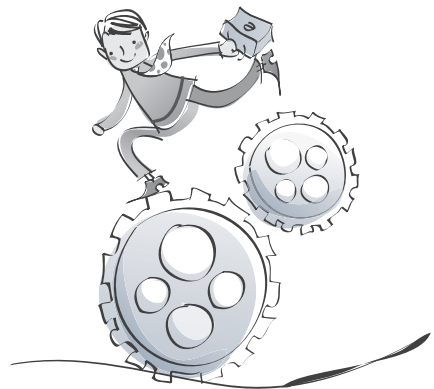
명해져갔다. 예컨대 나의 경우 일련의 채용 절차에서 유동화, 주택연금, 보증, 유동화증권발행 등 공사 실무지식을 접하고 그와 관련된 경제학 이론을 공부했던 덕분에, 연수기간 동안 직무를 좀 더 익숙하게 대할 수 있었다. 사전에 피상적으로만 접했다면 아주 혼란스러웠을 여러 실무이론과 지식들도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한 토대 아래 살을 붙여 나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속도로 실무연수과정을 소화할 수 있었으며 실제 부서 배치 이후에도 직무에 대한 몰입도와 만족도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에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직무능력중심 채용이 취업준비생들의 우려와 혼란을 불식시키고 21세기 새로운 채용 방식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정책방침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 강제하기 보다는, 직무능력의 판단 기준과 채용모듈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렇듯 일관적인 채용방침을 정립하여 신뢰 구축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정부 방침에 따라 시시각각 채용절차를 변화시켜 일관성을 잃기 보다는, 전형 단계별 평가 요소를 실무에 근거하여 표준화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직무기술서를 개발하고 다차원 평가를 통해 직무능력 평가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특히 신입직원을 포함한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취업준비생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아울러 공사의 ‘재밋지에 강좌’나 한국은행의 ‘금융강좌’와 같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제안해볼 수 있다. 이로써 인턴이나 학교수업의 범위로 한정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직무능력과 이해도 향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청년인턴



1

공(空)이 아닌, 공(公)을 굴리다!

김○○/한국수자원공사

전화위복, 실패가 보여준 새로운 길

학부 시절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최상의 이윤을 내는 기업들의 전략에 대해 공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공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공의 영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공무원이 되어 보겠다는 커다란 포부와 함께 전공과는 무관한 행정법, 정치학과 같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무던한 공부벌레로 그렇게 3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욕심만 앞섰던 고시 생활을 끝내고 나니, 학교에 혼자 남아있는 스스로에게 많이 조급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새 친구들은 해외 연수에 대기업 인턴, 각종 공모전에 자격증까지 가지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막상 저만 아무것도 없이 텅그러니 남겨졌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초조하고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취업 준비가 뭔지, 자소서는 또 어떻게 써야하는지, 사회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조금도 되어있지 않았던 저에게 가장 커다란 기회이자 도전으로 다가왔던 것이 바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이었습니다.

인턴이라니, 너 가면 복사밖에 안 할걸, 차라리 그 시간에 취업 준비를 하지, 하는 주변의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인턴은 공공의 영역에 서있고자 하는 스스로의 사명감을 만족시켜주면서도 취업 준비를 위한 사회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특히 공기업은 경영학도의 경영 지식과 수험생 시절의 공적 지식이 시너

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보다 확고하게 공기업 입사라는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배웠는데?

대단한 일을 한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듯 수많은 복사를 하고, 전화를 받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인턴’이었던 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공문 한 장을 복사해도 그 안에 담긴 결재선이 있고, 직인이 있고, 관련 법률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습니다. 사소한 프린터 하나를 구매할 때도 공사 사규에 나오는 수의 계약 관련 조문들을 읽고, 비교 견적서를 받아오면서 공기업의 윤리를 배웠습니다. 평생을 전형적인 ‘문과생’으로 살다가 처음으로 CAD 파일을 프린트 하면서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건물의 건축 도면이라는 것을 구경했을 때는 높은 토익 점수를 받았을 때 보다 훨씬 더, 스스로가 똑똑해 진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책상에만 앉아있던 저에게 인턴 경험은 사회생활의 일부분을 아주 친절하게 보여주는 교두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팀원 분들에게 저는 바쁜 업무를 조금씩 도와드리는 ‘인턴’ 이기도 했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준비하려는 ‘청년’ 이기도 했기 때문에 언제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견학시켜주고,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과 비교해 본다면 훨씬 냉정하고 딱딱할 수 있는 사회생활을, 청년 인턴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 있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체험과 채용, 각각의 교훈

첫 사회생활을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커다란 고리를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모두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취준생으로 풀죽어 있던 스스로가 내로라하는 공사의 사원증을 목에 걸었을 때의 뿌듯함은, 지치지 않고 더 달려 나갈 힘이 되었습니다. 복합기 전원도 켜 줄 몰랐던 어리숙한 학생이

결재 문서를 읽고 관련 자료를 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자부심도 조금 생겼습니다.

실제로 근무 첫 주에, 담당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이거 여기로 팩스 좀 보내고 와줘요’라는 이야기에 복합기 앞에서 30분을 찢찢 땀땀 지었습니다. 종이는 어디다 넣어야 하는지, 이 수많은 글씨 중 어느 것이 팩스번호인지, 보냈다고 보냈는데 왜 자꾸 에러라는 종이만 튀어나오는 건지…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점도 좋다는 여자가 팩스 하나를 못 보내서 찢찢매는 모습을 보시더니 과장님께서도 한참을 재미나게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잘해서 칭찬도 받아보고, 틀려서 혼도 나보는 와중에 청년인턴이 끝나고 팀원들에게 받은 롤링페이퍼에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응원이 가득해서 눈물이 왈칵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용기로 다시 도전한 것이 바로 한국수자원공사 채용형 인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곳입니다. 청년 인턴이라는 신분으로 수도, 수자원, 단지 각 분야의 여러 멘토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K-water의 시작과 미래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 복지를 담당하는 통합 물 관리 기관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전국 어디에서나 K-water의 로고를 만날 수 있었고, 인턴 기간 동안 OJT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지역을 누비며 직접 공사의 역할과 사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험형 인턴이 간접적인 사회생활 경험을 배울 수 있었던 제도라면, 채용형 인턴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업무와 회사의 가치를 함께 이해하고 배워나가는 시기를 제공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이전에 커다란 숲을 보여주었던 이 3개월의 인턴 경험으로 K-water가 대한민국 최고의, 그리고 유일의 통합 물 관리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제가 가진 자부심과 사명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크고 무거운, 공(空)을 굴리자

취업 준비를 해본 적 없고, 그래서 막연히 사회생활이 무섭다면.

거꾸로 너무 오랜 취업준비로 혼자만 하는 공부에 지쳐서 자신감이 사라졌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궁금한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알고 싶다면. 그렇다면 조심스럽

게 청년인턴이라는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유명한 드라마 ‘미생’의 명대사 중 하나로, “공을 넣으려면 일단 공을 차야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 인턴으로 근무했던 시간은, 단연코 제가 처음으로 차 본 저만의 짝 찬 공(公)이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턴 경험이 무의미하고, 시간낭비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청년인턴은 결코 헛되지 않, 비어있는 빈 공(空)을 굴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나만의 공을 굴리다 보면 어느새 크고 묵직한, 자랑스러운 나의 공을 눈앞에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도전이었던 인턴, 어두운 앞길의 랜턴

권○○/신용보증기금

도전이었던 인턴, 어두운 앞길의 랜턴이 되다

2017년 11월,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한 후 약 1년 정도 흐른 지금, 공공기관 취업 수기를 작성하며 취업 준비 때부터 직장생활까지 있었던 일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지금의 보람차고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의 첫 시작은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이었습니다.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했던 4학년. 도전과도 같았던 인턴은 어두운 제 앞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의 구원투수”

처음 신용보증기금을 알게 된 것은 2016년 5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설명회에서였습니다. 당시 인사담당자는 “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의 구원투수”라고 회사를 소개하셨습니다. 외환위기, IT버블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때마다 긴급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현재는 신용보증 외에도 신용보험, 컨설팅, 투자 등의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20분 남짓 진행되었던 짧은 설명회였지만 신용보증기금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해준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군 생활을 포함해 5년 반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온 대학교 4학년생이었습니다. 대학원, 취업, 전문직 등 여러 진로 고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캄캄한 미래에 대해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의 구원투수”라는 소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끈기 있고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2016년 8월,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면접 때 자기소개를 하며 마지막으로 했던 말입니다. 지원자 4명과 15분간 진행되었던 면접. 제 스펙을 늘어놓거나 직무와 연관도 없는 경험을 소개하기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신용보증기금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턴생활에 임할 것인가를 보여드리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얼마 후 합격 발표가 났고 집에서 멀지 않은 한 영업점에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으로 출근한 첫날, 잔뜩 긴장해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지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께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도전과도 같았던 인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님 안녕 하십니까”

인턴이 하는 주요 업무는 각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증서의 보증기한을 연장시키는 일입니다.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재무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보증 연장 및 일부 상환 계획 등에 대해 여쭙고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린 후 영업점 방문을 안내드립니다. 대표자가 방문했을 때 재무제표 등의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자필 서명 후 보증기한 연장을 진행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신규 보증을 받고 매출이 크게 상승한 기업의 대표님은 감사함을 표하셨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기업은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쭙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잘 모르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흥미로웠고 신용보증기금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

가 되었습니다.

인턴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중 하나는 직접 처리하는 업무 외에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점에서 근무했는데, 운 좋게도 한 팀의 막내 자리이자 다른 팀 팀장님의 옆자리인 곳이 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일이 바쁘지 않을 때는 옆 팀장님이 신규 상담을 받으러 오신 기업체 대표님과 대화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업체에 대해 업종, 업력, 규모별로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넌 잘해낼 거야.”

2016년 9월, 업무가 손에 익기도 전에 신용보증기금의 공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소개서의 문항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는 업무대로 수행하면서 점심시간에는 틈틈이 직원 분들께 여쭙어보고 퇴근 후에는 관련 기사를 찾아보며 제 생각을 정리해나갔습니다. 2016년 10월, 감사하게도 서류에 합격할 수 있었고 이어서 필기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필기 준비 시간은 턱 없이 모자랐습니다. 몇 주간 저녁 6시에 퇴근하면 간단한 저녁식사 후 도서관에서 12시까지 공부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고된 생활이었음에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넌 잘해낼 거야.”라는 직원 분들의 격려와 “꼭 합격하고 싶다.”는 간절함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다 책임감 있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면접에서 소개한 제 지원 동기는 간단했습니다. 인턴을 해보니 꼭 일하고 싶은 회사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보다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것. 인턴 출신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목을 끄는 지원 동기는 아니었지만, 솔직하고 담담하게 제 다음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2016년 11월, 1차 면접은 마포사옥에서 3분 PT, 토론면접, 실무진 면접으로, 2차 면접은 대구본점에서 임원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방면의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이었

고, 모든 지원자가 훌륭하여 누가 합격해도 이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과 신용보증기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며 중소기업 대표님과 면담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찾아보고 정리했던 내용이 면접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식구네.”

2016년 12월, 드디어 신용보증기금의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고 인사부 차장님의 신체검사 안내 전화까지 받고 나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지점장님께서 “이제 진짜 우리 식구네.”라고 말씀해주시며 어깨를 토닥여주셨고 다른 직원 분들께서도 진심으로 축하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점에 배치 받아 인턴이었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인턴 경험에 늘 감사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시작 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운이 좋았던 경우였습니다. 진로를 못 정해서 앞길이 캄캄했었는데, 청년인턴이라는 첫 출발이 그 앞길을 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제게 꼭 맞는 직장이라고 생각했고, 이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채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게 잘 맞지 않는 곳이라고 느껴졌다면 그것 또한 다른 진로를 찾아볼 기회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의 일을 인턴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기소개서에 한 줄 더 쓰거나 인턴수료자 가점을 받는 것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원하는 분야에서 작은 일이라도 도전 해보고, 본인에게 잘 맞을 때 꿈을 키워가며 제대로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취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취업 후에도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턴으로 시작 하세요.”라고. 

3

“제가 해 본 청년인턴, 당신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정○○/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여러분, 지금 도서관에서 앉아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취업의 현실에 더 가까이 가는 청년인턴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2015년 4월, 현재 재직 중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입사 후 국토교통부 주관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서 제가 진행한 강연의 첫 마디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만 2년. 대학시절 누구보다 욕심을 가지고 학점관리, 동아리 활동,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등 취준생이라면 갖추어야 한다는 스펙 쌓기에 몰두한 제가 취업까지 걸린 시간은 길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장담컨대 회사를 불문하고 70번 이상 서류를 썼고 전국을 다니며 필기시험을 치르며 정장차림으로 새벽 버스에 올라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제가 채용 단계마다 좌절을 맛보던 중 한 통신사 인사담당자로부터 근무하던 선배에게서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습니다. “좋아, 어학점수도 높고. 그런데 너 회사에서 일 해본 적 있어?” 순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나름대로 잘했던 대학생 활을 말했지만 선배가 말한 조직생활은 실제 회사라는 조직에서의 경험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린나이이고 정식 입사 전에 회사에 일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스테디를 통해 잘 다듬어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하는 저의 대답이 정말 현실적으로 보일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저는 성실하고, 영문학을 전공하여 어학능력이 뛰어나고..’하는 열거식 소개보다 회사 근무 경험이라는

현실적인 경쟁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aT의 청년인턴에 지원하였고 광주전남지사에서 약 5개월간의 인턴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이는 28세. 처음에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신입사원도 아니고 청년인턴이라니’라는 생각에 조바심도 있었지만 조금씩 저의 생각은 변해갔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와 닿았던 것은 첫째, ‘회사 밖과는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던 저는 공공기관은 따분하고 보수적인 업무만 할 것이라는 생각에 어학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무역회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인턴이 되어 기관의 추진 사업과 세부 분야, 다양한 업무를 직접 보면서 우물에 갇혀있던 편견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초빙하거나 중국 등 현지 박람회 행사 추진 시 필요한 정보 스크랩, 공문 작성 보조, 지역 업체 실사 등 업무를 하며 회사를 다니지 않았다면 자세히 몰랐을 다양하고 힘이 넘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당시 저의 멘토였던 대리님 또는 차장님, 부장님과의 소통을 통해 단순히 회사 홈페이지 속 소개란이 아닌 그 이상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것이 많았고 그로인한 공공기관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둘째, ‘봉사활동을 하며 부pon 소속감과 사회의식’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자체 사업의 특징을 살리는 CSR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학생이 아닌 회사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은 인턴 기간 중 처음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농가를 위한 일손 돕기, 1사1촌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지역 농산물 홍보 차원의 SNS 공모전 추진을 하면서 학생 때와는 차원이 다른 현재 맡고 있는 인턴업무와 회사가 우리사회에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조직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 끈끈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 사회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함을 깨닫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자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원활한 조직생활을 위한 기반 쌓기’입니다. 회사는 업무 처리 방식에서부터 상사 또는 후배와의 관계까지 업무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협동의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동아리 등 대학생생활을 하며 조직 생활을 했지만 직급에 따라 또는 외부 고객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업무 태도는 상황을 직면하지 않는 한 한 번에 체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조금씩 회사 직원으로서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짧았지만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청년인턴으로서의 기간은 단순 스펙이 아닌 저 자신을 키우고 현실감을 가진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입사 3년차, 현재 FTA TRQ 수입관리를 담당하며 해외 업체 등에 정부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필요한 무역 공부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인턴 기간 동안 꿈꾸었던 aT인에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은 저를 바꾸게 했고 무엇보다 근무를 하면서 쌓은 고객응대 방법, 보고서 작성, 업무처리 방식 등을 통해 빠른 회사적응에 도움이 되었고 저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자신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곁에서 열심히 업무를 하며 입사를 꿈꾸는 인턴에게도 언제나 aT청년인턴은 참 잘한 일이라며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인턴과 배치 부서의 최근 입사자를 매칭한 사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도 인턴에 책임을 가지고 교육하고, 사업에 대한 의견 개진 등 다양하고 열린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취업준비 또는 입사 후에도 분명 중요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하는 취준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본 공공기관 청년인턴, 당신에게도 추천합니다.” 

4

농정원(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정원(庭園)에서 농(農)을 펼치다

박○○/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젊은 나이에 상경한 부모님 아래에서 조부님께서 농사지어 보내주신 농산물 덕분에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먹거리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 농업인의 노고·농업농촌의 가치는 부모님을 이어 나에게 전해졌고 이러한 가치를 안전·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전달한다는 부푼 꿈을 갖고 농업경제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 입학 후 경제적 어려움을 대산농촌재단 장학금, 농어촌 강사 활동, 농·식품 공모전 수상 상금, 연구비 등 농업 관련 활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청년인턴 면접 당시 나의 삶을 지탱해준 한국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 충성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또한 아직은 농업 현장과 사무직무, 모두에서 특출 나지 못한 반푼이임을 고백하였다. 그렇기에 여러 농가를 뛰어다녔고 누구보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고자 노력한, 농업에 대한 내 열정을 비쳤다.

25살, 농업경제학도가 9시부터 6시까지 농정원이라는 아름다운 정원(庭園)에서 농(農)에 대한 꿈을 펼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내 자리, 나만의 업무

4월 17일, 대학생 신분에서 취업계를 제출하고 첫 출근을 나서며 굉장히 설렘과 양복에 벅타이를 맨 모습은 어색했다. 설렘도 잠시, 농정원에서는 나의 자리와 나만의 업무를 마련해주었다. 9개월간, 성과확산실·감사실에서 근무하며 진행한 ‘내 일’에 대해 소

개하고자한다.

첫째, 기관 홍보 지원 업무이다. 기관 보도자료 배포 및 부서별 홍보 실적 조사 업무를 진행하였다. PD 출신인 윤○○ 대리님께서는 사진 한 장 지나치시는 법이 없었고 보도자료 리스트 정리와 공공기관 홍보 사례를 세세히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우리 원에 대한 관심은 추석 연휴에도 보도 자료를 습관적으로 검색할 정도로 깊어졌다.

둘째, 각 부서별 업적 평가 데이터 정리 업무이다. 각 부서별 업무 실적(계량·비계량)을 입력, 취합하였다. 용어조차 생소한 업무를 진행하며 이○○ 대리님께서는 단순히 숫자 입력이 아닌 산출 근거와 산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다. 이를 통해 각 부서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 사업 제안서 평가회 업무이다. 각 사업을 진행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회를 진행한다. 나는 사업 제안서 평가회 평가위원을 섭외 업무를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약속 시간을 정하듯 스케줄 관리 업무 정도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통화 중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

“아 네, 시간은 괜찮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말문이 막혔다. 잠시 양해를 구하고 사업 추진 계획을 이해한 후에야 답변을 드렸다. 이후 일주일에 많게는 8회, 적게는 2회 진행되는 평가위원 섭외 업무를 위해 사업 추진 계획을 들여다보았다. 5개월 간 약 40개가량의 사업을 이해하였고 각 사업의 주요 업무, 성격, 방향성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넷째, 내·외부 고객관리 업무이다. 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외부 업체 의견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였다. 마케팅 공모전, 논문경진대회에서 설문 조사를 여러 번 진행하였기에 자신이 있었다. 백○○ 실장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를 들여다보았다. 웬걸? 지금까지 배워온 리커드 5점 척도법, 즉 5개의 만족도 선택지가 아닌, ‘만족, 보통, 불만족’ 선택지가 3개밖에 없다. 의아했지만 설문 조사를 진행하며 실장님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업체는 추후 계약 등 불편·개선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것을 꺼려했다. 실제 설문 조사를 진행하며 대부분의 응답이 ‘만족’에 치우쳐 있었다. 이에 ‘보통·불만족’으로 응답한 업체를 집중 상담하여 개선사항에 대해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받기를 반복, 이를 이상이 소요되었다. 실장님께서 단어 하나, 문장 길이까지 세세히 지도해주셨다. 내 이름으로 최종 보고서가 결재되었을 때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효과적인 소통 방법과 보고서 작성법 등 배움에서 나아가 실무를 익힌, 큰 자산이 된 업무였다.

농정원에서는 단순한 업무 보조가 아닌 ‘나만이 해야 할 일’을 주었다. 또한 다그침이 아닌,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셨다. 그렇기에 업무를 마치고 ‘잘했네, 고생했어.’ 라는 한 마디는 너무나 달콤했다. 누군가가 묻는다. “너 고작 인턴인데 거기서 뭐 해?”, “내 자리에서, 내 업무한다!”

청년인턴, 너에게 고한다.

청년인턴, 실무 경험 및 실업문제 완화를 목표로 실제 청년층의 취업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필수 코스로 여겨지는 ‘청년인턴’, 농정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너에게 고한다.

첫째, 재직 기간이다. 농정원의 청년인턴 기간은 9개월이다. 입사 면담에서 박철수 원장님께서 긴 기간을 활용해 실무를 잘 익히라는 말씀을 전하셨다. aT(한국농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인턴 기간이 3개월 혹은 5개월 이내이다. 하지만 실제 경험으로 3개월은 기관에 대한 이해와 적응에도 벅찬 기간이다. 단순히 스펙 한 줄을 위한 청년인턴이 아닌 실무 경험과 진로 파악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직 기간이 필요하다.

둘째, 순환형 근무제 도입이다. 순환형 근무로 성과확산실·감사실에서 업무를 진행하였고 직무 경험 뿐 아니라 각 부서 간 업무 연계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년인턴으로서 다양한 직무 경험과 더불어 업무 흐름을 파악에 기여하리라 판단한다.

셋째, 취업 활동 보장이다. 취업박람회·면접 등 취업 관련 일정은 대부분 평일에 집중되어있다. 또한 최근 현장 면접·캠퍼스 리쿠르트 등 채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평일 근무로 인해 청년 인턴 재직자는 일부 제한 사항이 있다.

농정원에서는 인턴에 한해 취업 활동을 출장으로 처리하여 평일 취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청년인턴의 실업문제 완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평일 취업 활동이 보장되어야한다.

혹자는 청년인턴에 대하여 불안정한 고용, 취업 실효성 등 문제점을 제기한다. 하지만 경험자로서 청년인턴에 도전해보라고 당당히 권하고 싶다. 청년인턴 제도는 걸림돌이 아닌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나를 성장시킨 훌륭한 디딤돌이었다.

“제 꿈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11월 10일,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농업 관련 공공기관 최종면접, “지원자는 꿈이 뭔가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나는 농정원에서 농업에 대한 내 꿈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주위에서 꿈에 대해 물으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되어서 농업인을 위해 종사하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솔직히 너무나 두려웠다. 진로를 정했지만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단 어디든 들어가자.’라는 초조함을 떨쳐낼 수 없었고 점점 위축되었다.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지금, 많은 청년 구직자가 나와 같은 고민을 겪고 있을 것이다.

8월, 이러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농업과 무관한 회사에 지원하였고 1차 면접을 통과하였다.

고민하였다. 백○○ 실장님께서 “너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는 목표는 좋다. 그럼 목표에 부합하는 길을 설계해라. 설사 그 위치에는 못 오르더라도 그 근처에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조언하셨다.

송○○ 실장님께서 장관이라는 다소 황당할 수 있는 꿈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셨다. “구체적으로 장관이 돼서 뭐하고 싶은 건지 생각해봐.” 멘토 두 분의 조언과 지도편

달로 농업경제학도로서의 길을 확고히 하고 면접을 포기할 수 있었다. 나아가 농업 관련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었다.

11월 10일, 농업 관련 공공기관 최종 면접에서 물었다. “지원자는 꿈이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왜 그렇죠?”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서 농업인에게 충성하고 농업인을 섬기고 싶습니다. 농업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제 삶을 지탱해준 한국 농업농촌에 대한 우정이고 고향에 남아 자식, 손주 바라보며 쌀농사 지으시는 조부님에 대한 충성이기에 농업인에게 충성하고 싶습니다. 설령 그 위치에 못 가더라도 어느 자리에서건 묵묵히 농업인에게 충성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최종면접 결과가 어떻든 이제 방황하지 않고 소처럼 우직하게 목표를 향해 나갈 자신이 있다.

농(農)이라는 꿈을 펼친 농정원에서의 9개월 간 청년인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5

내 생애 가장 뜨거웠던 4개월

윤○○/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하회탈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면접에서 저를 소개했던 첫마디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기업에게 밝은 웃음을 선물하는 청년인턴이 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4학년이 되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이라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어오던 저에게 있어 청년인턴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의 청년인턴 근무는 실무를 직접 겪어보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의 업무는 단순한 문서 작업 등으로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인턴 또한 신용보증 관련 업무의 일정 부분을 맡아서 수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증기한을 연장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무 경력은 신입직원 공채에 지원했을 때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실무 관련 지식, 용어, 다양한 사례 등은 서류전형에서부터 시작해서 면접전형에 이르기까지 저를 어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면서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한 걸음씩 성장하면서 저는 ‘제 생애 가장 뜨거웠던 4개월’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도전하여 행복했던 열정으로 뜨거웠던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중소기업들의 도전정신과 뜨거운 열정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표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축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대표님이셨습니다. 보증기한 연장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이번에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00만 명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위구르족 시장에 도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눈빛을 반짝이며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비전을 설명하시는 대표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도전정신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대표님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수출하세요?”

저는 보증기한 연장이라는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수출기업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지원받는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업체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열정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인턴 도전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일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더 감사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보증기한이 다가오는 중소기업에 연장 관련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보증기한이 다가오는 중소기업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의료용 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청년인턴 근무 첫 달이었기 때문에 전화 한 통 한 통이 굉장히 긴장되었습니다.

... (중략) ...

“신용보증기금 덕분에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이렇게 잘 사업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통화였지만,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신용보증기금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중소기업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공공기관, 특히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하겠다는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웃기만 스쳐도 인연’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선배 직원 분들과 따뜻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업무를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만나 당황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주로 중소기업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을 앞에 앉혀놓고 처리하는 대면 업무이다 보니 더욱 긴장되어 신수를 연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선배 직원 분들께서는 발 벗고 나서 도와주셨고, 따뜻한 조언 또한 건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월하게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엔 신입직원으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30일, 4개월 동안의 청년인턴 근무 마지막 날, 선배 직원 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제가 했던 말입니다. 저는 청년인턴 근무가 끝난 후 신용보증기금 신입직원 공채에 지원했습니다. 선배 직원 분들과의 따뜻한 인연은 청년인턴 수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공채가 진행되는 중에도 선배 직원 분들께서는 애정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저에게 있어 큰 위로가 되었고, 저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기를 마치며... ‘지금의 나를 만든 것’

종종 공공기관 입사와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는 연락을 받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청년인턴을 추천합니다. 제가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하는 데 있어 청년인턴은 가장 큰 발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시장 속에서 청년인턴이라는 실무 경력은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확실한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막연히 공공기관 입사를 꿈꾸던 제가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을 통해 향후 진로를 확고히 했듯이,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취업 준비생이 입사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했던 4개월은 열정, 감사한 마음, 따뜻한 인연 등으로 제 생애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월이라는 시간은 지금도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 신입직원 공채에 합격한 때가 어느새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기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 ‘청년인턴 윤춘구’로서 제 생애 가장 뜨거웠던 4개월을 보낸 그 자리에서 이제는 ‘신입직원 윤춘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

내 취준의 사이다, 청년인턴

최○○/신용보증기금

텅 빈 자소서에서 지원동기를 외치다

오랜 기간 준비했던 대학원을 적성 문제로 그만두게 되며 갑작스레 접하게 된 취업시장은 낯설과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와 공백기, 환영받지 못하는 인문학 전공, 다른 사람들 다 한다는 대외활동도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쫓기듯 처음 작성해본 자소서는 스스로 보아도 실소가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완성해서 제출하는 일은 언감생심이었고, 일반적인 자소서의 1번 항목에 해당되는 지원동기만 밤새도록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다 제풀에 지쳐버리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한숨만 늘어가던 중, 청년인턴이라는 제도를 알게 된 계기는 한 취업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고를 보게 되면서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취업 관련 강의나 스터디 모임이 아닌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체험형 청년인턴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목구멍에 고구마 100개가 걸려있는 듯한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지원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많지만 그 중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지원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청년인턴제도의 의의를 그 어느 곳보다도 잘 살리고 있는 곳이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경험해본 이들의 수기를 읽어보며 신보의 청년인턴이 단순한 사무보조 업무가 아닌, 실제 고객들을 대하며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

무를 경험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그만큼 이곳이 경력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신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접수했던 원서는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되었고, 이후 열심히 준비한 면접에서 절실함이 통했는지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일 같은 일’을 하다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은 경기도 안양지점이었습니다. 초봄의 차디찬 바람이 불던 첫 출근 날의 날씨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인턴’이 아닌 ‘주임’이라는 직함의 명함이었습니다. 이를 보는 순간 정말로 이곳에서 계약기간 동안 복사만 하다가 끝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주일도 되지 않아 책상에는 생소한 서류가 쌓여있고, 중소기업 사장님과 상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보 청년인턴의 주요업무는 신용보증서의 기한을 연장하는 업무입니다. 보다 자세히 본다면, 기한 연장업무는 과거 발급된 신용보증서의 기한을 늘릴 때, 해당 기업이 연장이 합당한 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운용해야 하는 기금관리형 기관의 특성상, 이렇게 옥석을 구분하는 작업은 조직 전체의 효율성 관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사문서와 관련 규정을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다행히도 신보의 청년인턴 연수프로그램은 온라인, 오프라인 연수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기에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매일 성장해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더라’가 아니라 ‘그러더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어떤 조직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나아가 자신이 그런 회사에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당

시 제가 신보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이 흔히들 수동적이라 생각하는 그런 공기 업이 아니며, 끊임없이 내외부의 고객을 만나 대화를 나눠야 하는 역동적인 조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이 대민서비스에 익숙한 사람, 때때로 쌓이기 쉬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다 유리할 것 같았고, 실제로 300건이 넘는 연장업무를 처리하며 자신이 그런 역량이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직의 문화와 관련하여 ‘겪어보니 그러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신보 인턴 후기들이 이곳의 장점으로 상호배려에 익숙한 직장문화를 꼽았고 당시 제가 일하며 느꼈던 것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청년인턴 경력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채용공고를 알려주시던 팀장님, 질문을 하면 “최주임 왔어? 여기 한 번 앉아봐” 하시며 바쁜 와중에도 업무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려주시던 차장님, 공부에 도움 될 자료를 한 아름 안겨 주시던 주임님들의 따뜻한 관심은 단언컨대 제가 이곳에 오고 싶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막연한 내가 아닌 조직 속의 나를 소개하는 일

계약 만료 직후, 이제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또 다시 절박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그곳에 가야 한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간절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별다른 슬럼프 없이 하반기 공채까지 달려올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인턴 생활이 이후에 가져온 또 다른 변화는 자소서를 작성할 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 내에서 스스로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 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단순한 자기 소개가 아닌, 조직에서의 스스로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신보뿐만 아니라 타 기업의 서류합격을 역시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스스로도 왜 지원하는지 잘 모르던 지원 동기는 어떤 말을 골라 써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누구보다 바쁜 여름을 보내며 이제는 정말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자신감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사항 한 줄 이상의 경험

취업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자 신보 공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까마득한 경쟁률을 뚫어내야 하는 만큼, 서류전형, 필기시험, 두 차례에 걸친 면접이라는 산들을 하나하나 넘는 일은 그 어떤 단계에서도 만만하지 않은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신보 최종면접을 마무리하고 나왔을 때 어찌나 긴장했던지 손을 올려놔던 바지의 무릎부분이 땀에 젖어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극도로 긴장된 상황, 까다로운 면접 질문을 받고 고민하던 순간들을 ‘그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 하는 질문으로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청년인턴을 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간절함, 경험 그리고 지식들이 이른바 ‘멘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소중한 자산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한다는 취업난에 청년인턴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필기시험에 집중해서, 혹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험해본 청년인턴 제도는 정말 매력이 많은 제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청년인턴 생활은 힘든 취준 생활을 버티게 만들어 주었던 뚜렷한 목표,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이 되었던 자신감, 제 취직을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들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학원에서든, 스튜디오임에서도 구하기 힘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신보에서의 인턴경험은 돌이켜보면 제 취준 생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저처럼 답답함을 느꼈던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청년인턴이라는 시원 달달한 사이다 한 잔과 함께 자신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

당신의 '노'가 되어줄 청년인턴 제도

서○○/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를 통해 국민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 황성 숲체원 산림치유팀 주임 서○○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일원으로서 하루가 또 시작됐다. 오늘은 진흥원의 채용형 청년인턴 평가를 거쳐 정식으로 주임으로 발령받은 지 꼭 10일만이다. 내가 현재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년인턴’ 제도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2년간의 취업준비기간을 견뎌냈고, 현재는 산림복지를 통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의 발자취를 소개하려 한다.

2015년, 여름-“청년인턴”을 마주하다.

2015년 8월, 대학교 8학기를 다니고 있던 나는 “졸업반이네, 취직해야지.”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하지만 그 당시 나에게는 ‘취업’이라는 것이 생소했다. 왜냐하면 경찰행정학과를 전공했음에도 나의 적성에 더 적합한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학과 동기 및 선배들이 공무원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는 모습만 보았기에 내게 공공기관 취업과정은 누구보다 어렵고 낯설었다. 공공기관은 기관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역량과 인재상 등 각 기관마다의 특성이 달랐다. 또한,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도입한 NCS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 12월까지 단 한 개의 공공기관 최종면접까지 통과하지 못했

다. 좌절감도 좌절감이었지만,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지금 스스로도 ‘이게 맞는 길인가, 잘 준비하고 있는 건가.’라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혼자서로는 도저히 막막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고, 취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을 해 주는 학교 취업지원센터에 찾아갔다. 센터에서는 내게 ‘청년인턴’제도를 소개해주었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 미취업자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능력과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절박했던 내게 돌파구는 바로 ‘청년인턴’ 뿐이었다.

2016년, 겨울-“청년인턴”을 경험하다.

2016년 초 ‘청년인턴을 경험해보자.’는 목표를 세웠고, 그해 4월 KDB산업은행 신탁실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활동하는 기회를 얻었다. 취업에 ‘취’자도 몰랐던 내게 산업은행에서의 4개월 인턴 경험은 한 줄기의 빛이었다. 내가 맡았던 업무는 산업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래처들과의 부동산신탁 및 금전채권 신탁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였다.

인턴을 하며 향상된 능력은 보고서 작성능력과 발표능력이었다. 200여개 업체들의 트리거(trigger, 자동개입조항)조항을 관리했는데, 가지급 조건이나 조기상환조건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맡아 보고서 작성 및 데이터 분석능력을 길렀다. 또한, CS교육을 위한 PPT 및 교육 자료를 만들었고 신탁실장님을 포함한 48명의 직원 앞에서 CS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실무경험과 사회 초년생으로서 조직생활을 경험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

2016년 8월, KDB 청년인턴 생활을 마치고나서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취업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100개가 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고 수많은 자기소개서 및 면접 탈락을 경험하면서 1년의 시간을 또 지나보냈다. 이 시간동안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왜 난 안될까라는 좌절의 순간도 많았다.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했던 시간 속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나의 꿈을 멈출 수는 없었다.

2017년, 여름-“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만나다.

마침내 2017년 7월, 현재 재직 중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채용형 청년인턴으로 선발되었다. 선발에 있어 지난 4개월 간 청년인턴 경험은 3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

첫째,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어떠한 업무 프로세스를 거쳐 일이 진행되는 지 경험했다는 점이다.

둘째, ‘조직적응력’을 배웠다. 조직의 목표와 미션을 이해하고, 조직구성원으로서 맡은 업무를 수행해내는 책임감을 길렀다.

셋째,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다. 국민 행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기관에서 업무를 배움으로써 공인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배우는 계기였다.

하지만, 진흥원에서도 정식채용을 위해 ‘전환평가’ 과정을 거쳐야만했다. 3개월 동안 기본적인 역량평가뿐만 아니라 제안 보고서 작성 및 발표 평가를 통과해야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었다. 단연 정규직 전환평가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역시 청년인턴 경험이었다. KDB 청년인턴을 할 때 과장님과 나누었던 인상 깊었던 대화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이었다. 당면과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해야만 공공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가르침은 전환평가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지금 공공기관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나의 모토가 되었다.

그래서 보고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진흥원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의 행복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사회복귀를 위한 산림복지예비전문가 교육과정 신설’이라는 제안으로 도출될 수 있었다.

또한 제안내용을 보고서로 적절히 표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발표에서도 200여건의 트리거조항 보고서 작성과 CS교육 진행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다. 대학생할 동안에는 전공이 경찰행정 이다보니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내성

적인 성격으로 무대 공포증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인턴경험으로 성장했고, 그만큼 전환 평가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일원이 되어 이 자리에 서있다.

2년 전부터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취업할 수 있을까.’라는 답답함과 막연함에 가슴 졸였던 날들이 눈에 생생하다. 그렇기에 지금 취업준비를 시작한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그리고 나만큼이나 간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청년인턴’제도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보았다.’

내가 2년 간 취업준비를 하며 힘이 들 때 고은 시인의 〈순간의 꽃〉 시를 읽으며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이라는 바다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를 젓던 순간에도, 우리는 한번 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전보다 얼마만큼 발전하고 있고, 또 잘 해나가고 있는 지를. 그리고 ‘청년인턴’ 제도는 그러한 ‘취업’ 바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노’가 되어줄 것이다. 

8

청년인턴, 나만의 강점과 취업의 확신을 주다

이○○/한국수자원공사

청년인턴의 필요성 인식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취업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에 이끌려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기업들에 무분별하게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취업 준비 1년 동안,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업’만 한다고 해서 인생의 끝이 아니었고, 취업이라는 것은 평생 다닐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회사를 찾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저만의 강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답은 청년인턴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청년인턴을 지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 청년인턴 합격

작년 11월, 공공기관의 채용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갔습니다. 그 중 평소에 관심을 가지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듬해 초에 청년인턴을 채용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수자원공사 청년인턴 합격’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4개월간 체계적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수강한 전공과목과 팀 프로젝트를 정리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등을 분석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대비했습니다. 또 기계기사 7개년과 NCS 문제집 여러 권을 반복적으로 풀며 필기를 대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년인턴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목표 만들기

청년인턴으로서 합격한 후,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인턴 과정 중 ‘배우는 것을 모두 익혀 저만의 강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청년인턴 전반전, 회사를 파악하다

먼저 5주간의 직무교육과 4주간의 1차 OJT(On the Job Training)를 받았습니다. 직무교육으로 경영지식, 수처리 프로세스, 수처리 설비 등을 배웠고, OJT로 3곳의 정수장을 직접 눈으로 보며, 처리 프로세스와 설비를 익혔습니다. 또 실제 액츄에이터 보수 업무와 와이어로프 교체 및 수문 도장 작업에도 참여하며 기계전공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각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인턴과정 중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직원들이 ‘깨끗한 물 공급’에 책임감을 느끼며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질이 좋지 않은 물이 유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모든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해결법을 제안하고, 수질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수많은 비상훈련들과 수처리 설비를 사전에 유지 보수해 오작동 등의 문제들을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이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일해도 후회 없겠다는 확신과 ‘깨끗한 물 공급’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년인턴 후반전, 구체적인 업무를 배우다

2차 OJT로 본사 수도기술처에서 4주간 업무를 익혔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기술진단으로 전국의 정수장 설비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및 효율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계직렬로서 설비 진단항목 5가지를 배웠습니다. 깊은 이해를 위해 각 항목의 기초 전공지식을 공부한 뒤, 각각의 진단기기 사용법과 구동 소프트웨어의 작동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포항정수장으로 직접 가서, 기술진단 업무로 압력 값과 펌프·모터의 진동 값을 측정했습니다. 측정한 압력 값과 디지털 지시 값을 비교해 기존 계측기의 안정성을 확인했고 진동 값을 체크해 펌프가 동작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기술진단으로 정수장 내 설비의 안정성을 체크하며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했습니다.

청년인턴을 통해 얻은 자산

청년인턴을 하며 회사의 분위기와 법, 내부규정 등을 기반으로 모든 업무가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무 전에 규정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또 실제 기계직렬로서 기계전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설비의 구동원리 등을 파악할 때, 전공을 바탕으로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문제의 해결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의 인턴으로 속해있으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의사전달은 업무 속도를 빠르게 했고, 친밀한 인간관계는 업무 부탁을 받았을 때도 내가 맡은 일처럼 정성껏 하게 했습니다. 이는 저의 인간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익히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의 업무 및 추진방향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간 문서파일을 모두 다운 받았고 중요파일은 파일링해서 공부했습니다. 또 학부시절 배우지 못한 전공지식은 서적을 구매해 보충했고 모르는 전문용어는 따로 파일을 만들어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3개월 인턴생활동안 배운 점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주었

습니다. 바로 “수도 기계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진단 업무를 하며, 전국 정수장의 기계설비들을 익히고 문제점들을 기록해 저만의 노트를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 특정 관리단에 속해, 그 관리단의 설비들을 공부하고 유지보수 및 개대체를 하며 역량을 쌓을 것입니다. 이렇게 역량을 쌓아 밎고 맡길 수 있는 “수도 기계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으로 정규직 전환 성공

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해도 후회 없을 것 같다는 확신과 저만의 강점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턴생활에 임한 결과, 필기 중간시험 1등과 면접평가 상위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청년인턴 제도를 바라며

청년인턴으로서 일하며,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인턴채용의 규모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인턴을 통해 회사의 분위기,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실제 실무에 제 전공이 어떻게 쓰이는 지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어떠한 공부, 경험보다 뜻깊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인턴을 경험할 수 있는 취업준비생의 수는 적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인턴교육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배정 받은 과 선배님에 따라 배우는 것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인턴 교육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이를 기반으로 배우고 그 후 각 현장특성에 맞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인턴을 주저하는 후배들에게

요즘 신입사원 채용뿐만 아니라 청년인턴 채용의 경쟁률도 높아 합격하기 쉽지 않음

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1년간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켜보니, 중요한 것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인턴 합격’, ‘배운 모든 것을 익혀 나만의 강점으로 만들기’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청년인턴이라는 채용제도를 활용해 그 누구보다도 저만의 강점을 길렀고 그 결과 원하는 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님들도 먼저 자기 자신을 분석한 뒤, 뚜렷한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 ‘청년인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모두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Ⅲ

고졸채용



1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박○○/도로교통공단

이야기를 시작하며

“축하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직원 채용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합격 메일을 받고 얼마나 기뻐던지, 펄쩍펄쩍 뛰던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러 지금은 도로교통공단 직원이자 인하대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이야기가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많은 후배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며 이 수기를 작성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꿈을 향한 첫 걸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회계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제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배워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고, 이에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던 터라 부모님께서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순탄하고 평범한 길을 걷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회계에 매력에 빠져버린 저는 부모님을 설득해야만 했고, 무작정 주변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과목을 배우며,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묻고 메모했습니다.

그 때 처음 공공기관 고졸채용과 선 취업 후 진학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고, 확고한 제 생각에 결국 부모님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권유가 아닌, 발로 뛰며 스스로 알아보고 결정한 진로였기 때문에 더 열심히, 후회 없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 합격의 문을 열다

물론 고졸자로 공공기관에 취업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산회계 1급을 비롯한 17개의 자격증과 1%의 성적, 흔히들 말하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공기관이라는 높은 벽 앞에 수없이 많은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공단에서 꼭 저를 뽑아야만 하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느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것은 뛰어난 스펙이 아니라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나를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자기소개서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스펙의 나열이 아닌 공단의 인재상에 맞는 제 경험을 적기 시작했고, 왜 꼭 도로교통공단이어야만 하는지, 공단에서만 이룰 수 있는 비전에 대해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진심이 통했고, 마지막 전형인 면접전형만을 앞두고 되었습니다. 면접전형 중에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은 PT면접 이었는데, 면접 당일 주제를 주고 5분 동안 생각한 뒤 바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다리도 떨려오고, 말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PPT발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회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주제는 ‘겨울철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이었는데 평소에 택시운전을 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교통사고에 관한 기사를 볼 때면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던 저였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6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발표를 시작했고, 그동안 교통사고에 관한 기사를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능력이 뛰어나서도, 다른 지원자보다 발표를 잘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사에 대한 애정과 꿈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간절했던 타인지 회계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의 설렘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계속 하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소한 계정과목도 많았고, 특히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관련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더 나아가 공단 최고의 회계 및 세무전문가가 되기 위해 대학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조직에 피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회사 근처에 있는 대학교를 알아보았지만 회계와 관련된 과가 없었고, 결국 인천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19시부터 시작하는데다가 통학시간이 2시간 30분이나 걸리는 탓에 정상적으로 퇴근을 한다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회사에서 수업이 있는 수요일은 07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셨고, 시간대에 맞는 버스가 없는지라 아버지께서 인천에서 충주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를 태워다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학비의 50%를 지원해 주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배려 속에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이용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배움의 질이 달라졌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무에 적용하며 한층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영자료 처리이론 수업을 통해 엑셀의 많은 기능을 배웠는데, 이를 바탕으로 영수필증 정산 업무에 필요한 엑셀파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것

과는 달리 오류검증을 할 수 있게끔 변형하여 활용함으로써 조금 더 정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영어 시간에는 ‘면허취득 절차’를 PPT로 만들어 발표함으로써 모르는 용어와 문장 등을 학습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시험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겪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학습하여 졸업 후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이고, 더 나아가 회계 및 세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공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멘토 선배님, 감사합니다!

열아홉에 시작한 타지에서서의 첫 직장생활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학교와는 전혀 다른 직장 내 분위기에 어떤 일을 도와드려야할지 몰라 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은 다름 아닌 멘토 선배님이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신규 채용된 직원들이 공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게 직장예절에서부터 사소한 업무 하나하나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첫 직장생활을 무사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타지생활로 인해 혼자 저녁식사를 해야 하는 저를 위해 매일 함께해 주셨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늘 체크해 주시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멘토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공단에 잘 흡수될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고졸채용에 대한 정책 제언

고졸채용에 있어 바라는 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채용 인원의 확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정원의 일정 비율만큼을 고졸자로 채용하고 있지만 채용인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직장예절이라는 과목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준비나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입사 후에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이나 정확한 존댓말 사용법 등 직장예절에 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면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걱정 가득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후배님들께

마지막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잊지 말아야 할 2가지를 뽑는다면,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것과 작은 일이라도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보다 사람이 된 직원과 같이 일하고 싶은 법이다. 인사만 잘해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시험장은 유독 웃음이 넘쳐납니다. 밝은 미소로 건넨 말 한마디가 하루를 웃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퇴근 전 내일 해야 할 일을 적어 놓는다면, 놓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을뿐더러 업무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시간절약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한 번 배운 일은 다시 여쭙보지 않도록 업무노트에 따로 적어놓고, 상사분이 부르시면 늘 수첩을 들고 다니며 메모한다면 어느새 믿음직스러운 직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이 가장 초조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해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나폴레옹의 말처럼 끈임 없이 도전한다면 어느새 공단 사원증을 메고 출근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고졸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고졸전형으로 입사하여 현재 대전·충남 지역본부 공주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졸 사원 이대화입니다. 저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처럼 꿈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어느새 꿈만 같던 직장에 들어와서 적응해가는 제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모든 이들이 원하는 꿈의 직장에 취업하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주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신입사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 고졸 취업준비생들의 입장과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경험자로서, 신입사원이 겪었던 경험이나 생각들을 현재 고졸 채용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을 법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임감”

학창시절 공공기관에 대해 생각했을 때는 그저 ‘돈 편하게 잘 버는 직업’, ‘정년이 보장된 직장’으로 꼭 가고 싶은 직장 정도로만 가볍게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직장생활을 겪어보니 공공기관인 만큼 안정되고 월급은 잘 받지만, 생각

보다 업무가 편하거나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문장이 공공기관에 정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이나 국가의 재산권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저버리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기본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공적인 일을 처리해야만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여러 회사의 경영방침에는 책임감이라는 항목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어리기 때문에,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일 처리를 대충하는 것은 직장의 경영방침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한번 잃은 신뢰는 다시 얻기 어렵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더는 공공기관으로 남아있기 힘들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스스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취업은 새로운 출발”

보통 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내 인생에서 힘든 일은 끝나고, 꽃길만 남아있을 거라고 많이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취업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했고,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해도 다 잘 될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안일한 생각들은 모두 틀린 것이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며, 재산권을 지켜주는 등 중요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저의 부족함과 작은 실수들로 인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이 일로 인해 저의 무책임했던 생각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이라고 직장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너무 부끄러웠고, 직장생활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형식적으로만 하던 업무들이 이제는 내 일처럼 생각되고, 더욱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었지만,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저 자신을 발전시키고 좀 더 성숙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직장생활이 제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학생 때는 취업을 하면 고생은 끝으로만 여기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새 출발 하는 것은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취업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처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직장생활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직장 내 권위의식”

사실 취업하기 전에 직장상사의 권위의식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 때, 사회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 드라마에서 본 게 전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이 권위의식을 중요시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실천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 리더십 있는 행동으로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이 아닌,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로서 저를 많이 존중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분들과 함께 일을 해보니, 입사 전에 대부분 걱정했던 일들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살로 입사한 저와 많게는 4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분도 계시지만, 저를 동생이나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업무 외에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를 인지하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만 있다면, 언제든 그분들이 여러분의 멘토, 또는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각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했던 부분으로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 대한 느낌을 적었습니다.

네 번째, “고졸 사원에 대한 차별”

고졸 채용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반 공채로 들어온 다른 직원들과 차별대우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뒤 바로 취업을 하게 되어, 대학교를 졸업한 동기들과 업무능력에서 비교가 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대졸 사원이 이론적으로 배운 것은 나보다 많을지 몰라도 똑같이 입사를 시작한 동일 출발 선상에 서 있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 말에 자신감을 얻어서 남들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였고, 서로 도움을 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결과 주변에서 고졸에 대한 선입견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현재는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고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사회에는 고졸 채용에 대한 선입견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한다면 자신의 가치를 높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졸 채용을 준비하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상상을 하며 설레기도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사하게 되면 남들보다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운전면허도 따야 하고, 대학도 가야하고, 기사 자격증 취득과 또 남자들은 군대도 가야 합니다. 안 그래도 바쁜 직장생활인데 거기서 시간을 더 쪼개서 활용해야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만큼 일찍 취업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채로 입사한 사람들보다 적어도 5년 이상은 취업을 빨리한 덕에 경제력을 갖추 수 있고,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와서도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업무와 관련된 대학공부를 통해 지식을 쌓아 전문성을 갖춘다면, 선 취업 후 진학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저희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젊음’과 ‘패기’, 그리고 앞선 5년여 간의 실무경험 등 이러한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면 더 큰 꿈을 이룰 도전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회사에 꼭 필요한 미래의 인재로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이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3

처음이라는 설렘

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뚜벅 뚜벅’ 길들여지지 않은 구두소리와 함께 앓던 얼굴의 학생이 어색해 보이는 양복을 입고 적막한 사무실 문을 지나 조심스레 인사를 한다. “처음 뵙겠습니다! 신입사원 황민재입니다!”

‘첫’ 출근 날을 떠올리면 그날의 떨림이 지금까지도 나에게 묘한 감정을 전해준다.

첫 번째 설렘: 직장, 나를 맞이해준 회사

현재 나는 5년차 직원이지만, ‘처음’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나를 설레게 한다. 첫 번째 직장, 첫 군대생활, 첫 대학생활 등… 회사는 나의 ‘처음’과 많은 것을 함께하였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에게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어렵기만 했다. 회사의 문화도 어려웠고, 평균 20세 이상 차이나는 대선배님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회사와 선배들의 배려와 관심은 부드러움과 동시에 따뜻했고 그로 인해 나는 회사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회사 또한 나의 적응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나의 멘토 과장님을 지정해주어 멘토링을 통해 업무에 수월하게 숙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고 고졸사원 지원방안도 신설하여 자기개발을 철저하게 도와주었다. 그렇기에 나는 업무에 숙달될수록 자만하지 않고 업무에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며 선배와 회사에 술선수범(率先垂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부서에서 필요로 하

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내가 처음 발령받아 근무한 부서는 사회에 대한 편견을 없애줌과 동시에 많은 추억을 선사해주었다. 모든 것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겠지만, 성년의 날 선배들이 와이셔츠와 벨트를 선물해준 것과, 군복무 중 선배들의 편지를 받은 것은 현재까지도 나의 아름다운 추억 중 하나이다.

두 번째 설렘: 군대, 나를 기다려주는 회사

입사 후 바쁜 일상을 보내던 나는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회사를 휴직한 후 군대에 가게 되었다. 군 복무라는 새로운 경험 또한 회사 선·후배들의 배움을 받으며 입대를 하게 되었고, 설레는 군대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찍 회사생활을 시작하여 또래와 지낼 시간이 부족했던 나는 군대생활이 정말 즐거웠고 2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빠르게 세월이 흘러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대가 가까워지니 군대동료들은 모두 진로 및 미래에 대한 고민에 힘들어했다.

하지만 나는 나를 기다려주는 회사가 있었기에 그러한 고민에서 벗어나 자기개발과 회사 복직 후 계획에 대한 고찰(考察)을 꾸준히 할 수 있었고, 선·후배들의 환영을 받으며 금의환향하듯 21개월 간 나를 기다려준 회사로 복직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설렘: 대학교, 나를 배려해주는 회사

복직 후 지식에 대한 갈증과 자기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나는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수도권외의 경우 '선 취업 후 진학'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대학진학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같은 부서 직원들의 응원 및 회사의 배려(시차출퇴근제, 수도권 내 발령 등)를 통해 나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마이스터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하지만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와 대학생활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체력적, 정신적 부담감으로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이 나를 압박해왔고 결국 휴학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장님께서 퇴근길 나에게 “학교는 힘들지 않아요?”라고 물어보셨다. 내가 예들려 “버틸만합니다”라고 말을 하려던 차에 과장님께서 “나는 민재씨가 너무 부러워요, 나는 젊을 때 그런 도전을 못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라고 나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 그 순간 회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자기개발을 할 수 있으면서도 도전을 두려워하는 나를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과 무언가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나는 휴학이라는 나쁜 생각을 버리고 전열을 가다듬어 주경야독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노력한 결실을 맺어 2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일과 학업 둘 다 병행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처음에는 대학생들의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비슷한 연령의 동기들, 시끌벅적한 교실 등 낮에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일만하는 내게 대학교는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묘한 감정과 이중생활을 하는 듯한 짜릿한 느낌을 주었다.

현재 비록 1학년에 재학 중이지만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면, 불역열호(不亦說乎)아>¹⁾ 라는 공자의 유명한 말처럼 배우고 익히는 것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배울 과목들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하다.

네 번째 설렘: 미래, 함께 찾아가는 회사

회사와 나는 현재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지만, 앞으로 함께해야할 시간이 약 40년으로 훨씬 긴 세월이며 그 긴 기간 동안 회사와 함께 ‘처음’으로 많은 것을 경험할 생각에 나는 벌써부터 설렌다. 나뿐만 아니라 고졸채용으로 입사한 후배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안주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나 같은 경우도 입사 후 주변 선배들의 조언으로 ‘도전’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작년엔 4개월 만에 목표로 한 자격증 4개를 취득했다. 또한 올해

1)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공자의 명서인 ‘논어’의 상징인 문구

는 대학교에 도전을 하였고 앞으로도 어떤 분야든지 끊임없는 도전을 할 것이다. ‘젊음’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고졸사원들이 학업이 되었든, 자격증이 되었든 의지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반드시 달성 할 수 있을 것이고 비록 실패한다고 해도 도전한 경험은 반드시 큰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 또한 ‘처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설렘을 느끼시길 바란다.

– 시도하지 않은 곳에 성공이 있었던 예는 결코 없다. –H. Nelson. 

4

당신은 ‘틀린 사람’입니까?

김○○/신용보증기금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란다.”

차이와 옳고 그름을 혼용하는 제자들을 향한 스승의 말씀이었다.

타인(他人), 흔히 남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우리는 이미 각자 ‘다른’ 사람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

“당신은 틀린 사람입니까?”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은 곧 길이 된다.

꿈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수동적으로 해야 하는 공부는 내키지 않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중학교까지 나는 줄곧 남들과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남들처럼 대학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그런 일반적인 학생. 그 길이 옳다 믿었다. ‘고등학교-대학교-취업’ 공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뚜렷한 목표는 없었고, 공부에 대한 동기도 부족했다.

그즈음 세간의 관심은 청년실업이었다. 내가 알던 ‘대학교-취업’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남들과 다르게 ‘고등학교-취업-대학’을 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

고,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알게 되어 특성화고에 진학했다. 주변 만류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다. 내가 틀렸다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지금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신용보증기금에 다닌다. 틀린 게 아니었다. 남들이 생각하는 막다른 길도 아니었다. 특성화고는 나에게 갈림길일 뿐이었다. 나처럼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더욱 많아진다면, 곧 모두에게 길로 인식되리라 믿는다.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파는 방법

나는 '목마른 놈'이 되었다.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선망할 금융권 취업이라는 목표가 생긴 후 입학 전부터 자격증을 준비할 정도로 이전과는 달라졌다. 남들과 다르게 사회에 빨리 첫발을 내딛는다는 것과 취업이라는 현실이 대학진학보다 더 설레었다. 상업교과목은 흥미로웠고 성적도 잘 나왔다. 관련 자격증도 취득해 나가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봉사활동, 대외활동도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게 되었다. 목마른 놈은 취업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작은 목표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며 갈증을 해소해 나갔다. 분명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목표를 이뤄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물은 말라갔다. 나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왔다.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걸어가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방향과 목표의식마저 흔들렸다.

“나는 왜 취업을 하고 싶은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나는 그저 목표만 있었다.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이뤄야지, 무엇이 되어야지. '무엇'에만 집중한 나머지 '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목표에 앞서 목적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신용보증기금 업무를 할수록 더욱 배움의 갈증을 느낀다. 나의 취업 목적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싶기 때문'이다.

목표가 나를 우물 파는 목마른 놈으로 만들어 주었다면 목적은 마중물 역할을 하여 나에게 마르지 않는 우물을 주었다. 무작정 우물만을 팔게 아니라 마중물을 찾길 바란다.

Connecting the dots: 목적을 찾아서.

‘타인의 행복을 위한 열정이 곧, 나의 보람과 행복이다.’

취업의 목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금융권 취업을 위한 목표는 많았다. 자격증, 봉사활동, 대외활동, 교내활동, 학업성적 등 이루고 싶은 것이 많았고, 주어진 일도 많았다. 물론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별로 내키지 않는 일도 있었다. 솔직히 말해 모든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이다. 목표로 가는 길에는 흔들림도 많았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은 아닌가? 내 길이 틀린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니 나의 발자취가 보였다. 목표에 지치고 힘들었어도 결국 발자국들은 찍혀있었다.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방문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들어도 주말마다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 봉사했던 일.

친구들과 서로 꿈을 키워나가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자율동아리를 조직한 일. 학생회장 선거를 하며 경쟁하고, 공약하고, 당선된 후에도 지키기 위해 뛰어다녔던 일. 보폭이 어긋난 것 같아도, 때로는 조금 돌아가도 내가 걸어온 길을 이루고 있었다. 나의 선택으로 남들과 다른 일을 했을 뿐 틀린 것이 아니었다.

‘무엇’을 해왔는지 돌아보니 ‘왜’ 해왔는지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타인을 도우며 열정적이었고, 나도 같이 기뻐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며 대형 도서관 못지않게 내실 있는 운영을 도왔던 경험은 나에게 큰 성취감을 가져다주었다.

단순히 금융권 취업을 바라보았던 나는 그렇게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싶다.’는 목적이 생겼다. 목적이 생기고 나니 막연히 금융권 취업이 아닌 신용보증기금 입사를 꿈꾸게 되었다.

목적에 맞는 목표들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금융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공부와 경험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동아리와 대외활동 등에서 창업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신용분석사, 매경테스트 최우수 등 어렵게 느껴졌던 자격증도 취득하며 경험과 능

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었다.

선은 무수한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경험'이라는 점은 결국 '자신'이라는 선을 구성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직선이면 어떻고 곡선이면 어떠한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일 뿐이다. 자신을 이룬 점들을 한번쯤은 돌아보고 고민해 보길 바란다. 단순히 고민하는 것 보다, 자신의 경험들을 토대로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그 속에서 목적을 찾아가길 바란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목적이라는 원동력과 함께 살아왔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하되 자만하지 말자.

입사 후 연수원에서 다짐하며 사보 기고문에 작성했던 말이다.

취업에 있어서 자신감이 중요하다고들 한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고등학생이던 나는 자신감이 넘쳤다. 학교, 면접장 어디서든 당당하게 행동했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취업준비생이라는 이유로 주눅 들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목적에 맞게 목표를 준비했다.

나를 믿었다. 돌아보면 조금 자만하기도 했었다. 취업준비에 몰두하는 바람에 주변사람들에게 소홀한 적도 있었고, 나만의 방식을 고집한 적도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에 합격한 후 깨달았다. 나에게는 나보다 더 기뻐해주는 주변사람들이 있었다. 취업은 나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항상 나를 믿고 지지해준 분들이 있었기에, 열성적인 가르침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의 자신감의 원천은 그들이었다.

고졸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아직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 취업 후 진학'제도처럼 목이 마를 때 공부할 기회는 열려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감을 갖자. 응원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음을 잊지 말자. 나의 발자국을 남기는 이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향해 자신 있게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

끝으로 내가 서두에 던진 질문에 답을 해주고 싶다.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5

제 나이 스물, 저는 고졸입니다

박○○/신용보증기금

나는 아직 젖살이라고 믿고 있는 통통한 볼살에 화장을 안 하고 미용실이나 병원을 갈 때면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수줍게 스무 살이라고 말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뒤따라오는 질문이 있다. “그래서 어느 대학 다니니?” 그럴 때면 살포시 웃으며 “저 회사 다녀요.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이야기한다. 처음엔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했다는 것만으로 다르게 보는 시선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저 고졸이에요.”라고 말한다.

인생의 계단을 한 걸음 오르다

취업이 힘들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 세대’, 경제적인 독립을 못해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캐거루족’ 등 취업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신조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청년 실업의 뉴스를 접할 때면 남 일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떻게든 되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또래들과 달리 지금부터라도 내 앞길을 스스로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내 나이는 16세, 중학교 3학년이었다.

한창 진로에 고심하던 중 서울여상을 졸업해 현재 은행 부지점장으로 재직 중인 어머니의 친구를 뵈게 되었다. 선 취업 후 진학의 과정과 고졸로서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의 현실 등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나는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결심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곳에 취업한다는 말은 이미 지난 이야기였다. 그런 이상만을 바라보며 4년이라는 시간을 대학에서 보내기엔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이 한편으론 두려웠지만 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교사이신 아버지는 평소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내 모습을 보고서 같은 교사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다. 그런 딸이 하루아침에 고졸로서 취업한다니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서울여상 입학설명회에 부모님과 함께 참석했다. 남들보다 일찍 취업해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 중인 사례를 들으며, “3년 후 저도 당당히 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믿어주세요.”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소신 있는 내 말에 아버지는 더는 반대하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아무런 걱정 없이 좋은 곳에 취업하여 앞으로의 인생이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 환승만 2번 해야 하는 왕복 2시간의 통학 거리에 적응하기도 전에 쏟아지는 수행평가에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과제를 해야 하는 날이 허다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하교할 땐 절로 눈물이 쏟아졌다. 다행스럽게도 학교 운동장에 벚꽃이 만개할 때쯤 멀디 먼 등·하굣길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어렵기만 했던 여러 전문과목도 방과 후 선생님들을 찾아뵈어 여쭙보면서 흥미를 붙일 수 있었다. 학습뿐만 아니라 배구대회, 합창대회 등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학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바쁜 학교생활을 보냈다.

2학년 때는 ‘금융정보과’에서 더욱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했다. 기업 분석을 하는 수행평가에서도 동 업종의 ROE, PER 등을 비교, 분석하여 리포트를 제출해 ‘Ultra Excellent’라는 값진 결과물을 얻으며 깊이 있는 지식을 더했다. 방학 때는 매경TEST,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전산회계, 무역영어 등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며 취업전선에 뛰어들 준비를 갖추어나갔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3학년이 되자 숨 쉴 틈 없이 공기업의 공채가 시작됐고 몇 번 지원했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취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한 학기가 지날 때쯤부터 불안함으로 바뀌었다. 주위 친구들은 한두 명씩 취업해나가는 반면 계속 제자리걸음인 나는 여름 방학동안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자기소개서 문항의 분석 미흡, 필기시험의 준비 부족 등의 문제점을 찾게 되었다. 남은 것은 실전이었다.

기다림의 끝에 신용보증기금의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 5월 신용보증기금의 청소년 희망 캠프에 참여하면서 입사의 꿈을 키웠던 나에게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입사 지원할 꿈같은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만큼은 찢어 보기식 지원이 아닌, 취업에 대한 절실한 마음으로 수면 시간을 2~3시간으로 줄여가며 준비를 했다. 부모님, 담임 선생님, 친구들 가리지 않고 입사지원서의 첨삭을 받고 인적성 검사는 문제집 3권을 풀며 여러 유형을 익혔다.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마침내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0여 가지의 기출 질문에 답을 달기도 하고 친구들과 모의 면접을 하며 면접 준비를 했다. 또한, 1년치 가량의 회사 뉴스를 출력하여 꼼꼼히 회사에 대해 파악했다. 그렇게 준비해서인지 면접 보러 가는 길의 마음은 평온했다. 실무진과 임원 면접을 하는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며 인생에서 최고로 길고도 짧은 시간이 끝이 났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면접 합격 통지를 받았다. 파란색의 합격 글씨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번 채용은 면접 합격 후 3개월 간 인턴으로 근무한 후에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지점에서 실습하는 동안 같은 팀의 차장님과 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출장을 나간 적이 있었다. “중소기업을 현장조사 할 때는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해. 회사명과 간판이 일치하는지, 우편함에 우편물은 쌓여있지 않은지, 사소한 것이라도 그게 그 회사를 보여주는 것이거든.” 여러 번 차장님과의 동반 출장을 통해 실제 필드에 있는 선배님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시엔 기본적인 보증서 연장이나 갹신밖에 할 수 없었지만 언젠간 이 일을 할 것이라며 가르쳐주시던 것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다. 3

개월간의 실습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나는 무사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20살 직장인

9월 12일, 첫 출근 날의 긴장감과 설렘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요즘도 출근길에 문득문득 마음 졸였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걱정했던 고졸에 대한 차별과 무시는 전혀 없었다. 현 부서에서는 열 일곱 분의 임금피크 부장님들께 ‘막내 딸내미’로 애정을 받고 있고 부서 분들의 따뜻한 가르침 아래 어엿한 주임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첫 번째는 같은 또래들처럼 대학 생활의 낭만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생활에서의 낭만은 극히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작 대학생인 친구는 낭만을 느낄 새도 없이 시험 기간이면 며칠간 밤새워 공부하고 영어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등 바쁜 생활을 보냈다. 한때 점심시간에 사원증을 패용하고서 커피를 들고 가는 직장인을 동경했지만 나쁜 오후를 필사적으로 버티는 노력임을 알게 된 지금, 내가 꿈꿔온 대학교의 낭만 역시 그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로 대학에 대한 아쉬움은 금방 접게 되었다.

두 번째로 직장을 다니면서 느낀 어려움은 바로 또래가 없다는 것이다. 현 부서에서 나이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분과도 10살 이상 차이가 난다. 모두 따뜻한 선배이지만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는 친구와는 달랐다. 다행스럽게도 나와 같이 입사하여 각 지역에 있는 고졸 동기 6명 덕분에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 있었다. 나이가 같다 보니 회사생활을 하며 느끼는 것 또한 비슷했고 처음 해봐서 모르는 일을 회사 메신저로 질문하면 서로 도와주려 노력했다.

고졸 채용에 있어 한 가지 바라는 점은 우리와 같이 여러 명의 동기를 채용했으면 하는 것이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원활한 회사생활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햇살 같은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길을 걷는 여러분, 특성화고 진학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을 잘 압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거예요. 산 넘어 더 큰 산이 있는 느낌이고 자존감은 바닥을 뚫고 내려앉을 것만 같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에서 벗어나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 무엇을 놓쳤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취업에 실패해서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여러분께 취업 준비 당시 위로가 되었던 노래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동률의 ‘괜찮아’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적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특성화고 학생분들, 파이팅 하세요!

“함께 출발한 네 친구들이 어느새 저만치 앞서 달릴 때, 닿을 듯 했던 너의 꿈들이 자꾸 저 멀리로 아득해질 때, 그럴 때 생각해.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 너를 더욱 빛나게 할 거야. 괜찮아, 힘을 내. 넌 할 수 있을 거야. 좀 서툴면 언제 가끔 넘어질 수도 있지.” 

6

유지경성-뜻이 있어 마침내 이룬다

이○○/한국감정원

1999년생 19살 한국감정원 막내 이○○입니다!

서울과 대구 사이 300km. 여행을 제외하고는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던 제가, 지금은 직장생활을 위해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채용형 인턴에 합격한지 어느덧 두 달째,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오고 있는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 나 특성화고등학교 가려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맛별이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덕분에 부족하지 않게 자라왔지만, 매일 저녁에 일하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며 빨리 자라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으로 이어졌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가겠다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저를 말렸습니다. 중학교에서 공부 잘한다는 소리 좀 듣던 터라 선생님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어머니도 아직은 고졸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 의견을 존중해주시던 부모님께서 이번만큼은 다시 생각해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길에 확신이 있었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취업한 선배 언니들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과 선생님을 설득했고 마침내 허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만큼만 내 인생이다

꿈을 품고 입학한 만큼 열정도 남달랐습니다. 태어나서 코피 한 번 흘려본 적 없었는데 시험기간마다 코피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회계는 갓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너무 생소한 과목이었지만 그마저도 좋았습니다. 덕분에 2년 동안 학급회장을 하면서도 성적우등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학년에 올라오자마자 선생님께 많은 회사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다며 거절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연습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몇몇 공기업에 지원했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서류 탈락은 물론이고, 딱 한 번 간 면접에서는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취업을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행동해왔는지 느꼈습니다. 그 후에는 가족, 선생님, 친구들에게 틈만 나면 자기소개서를 보여주며 조언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서로 면접상대가 되어주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면접관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두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취업이 안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불안함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행동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라며 걱정하기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면접연습이라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말! 뻔한 이야기 같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어도 자신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면 위축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신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감정원 임원면접을 보러 갔을 때 양옆에 앉은 친구들이 말을 정말 잘했습니다. 어디 가서 기죽는 성격은 아닌데 제가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옆 친구들에게 없는 저만의 장점을 어필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입사원 누구 뽑을지 고민 많이 되시죠? 제가 그 고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얼마 전,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 학교에 갔습니다.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일하면서 공부도 하니까 힘들지 않니?’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아예 안 듣고 시험을 친다는 부담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대구로 내려와 생활하다 보니 학교에서 교과서조차 챙겨올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교과서를 받았지만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창 일을 배우는 중이라서 업무를 익히기 위해 퇴근 후 저만의 매뉴얼 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과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배운 업무를 복습하는 것도 벅차서 매일 쓰러지듯 잠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인생의 마지막 고등학교 시험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자투리 시간을 사용해 공부했습니다. 출근할 때, 쉬는 시간에, 퇴근할 때 한 단어라도 더 보기 위해 애썼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 모르는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면서 어느 때보다 바쁘게 공부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적을 받았고, 취업도 했으면서 시험까지 잘 보냐는 친구들의 장난기 어린 투정도 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남들보다 한걸음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만큼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힘들다는데, 열아홉이라는 나이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한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생각보다 가슴 벅찬 일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려온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누군가 제 꿈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 분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특유의 노련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에 입사 후 부서 배치를 받았을 때, 부서 분들과 저녁을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동기들보다 열살은 어린 나이로 입사했지만, 자신의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제 분야에서 누구보다 노련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국감정원에 입사해서 이런 수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누구보다 행복하게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곁에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을 위해 힘쓰고 있을 친구들, 후배들에게 감명 깊었던 책 한 구절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꽃은 4월에 피고, 어떤 꽃은 9월에 피어난다.

잎이 피고 꽃이 피는 철쭉도 있고,

꽃이 먼저 피고 잎이 피는 진달래도 있다.

심지어 비슷해 보이는 철쭉과 진달래조차

그것이 피고 지는 순서가 다른 것이다.

우리 또한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어떤 꽃인지 아는 게 중요하고,
활짝 피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소중한 것이다.
- 빨간 머리 앤이 하는 말 中

여러분에게 큰소리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그동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유지경성! 모두 자신의 뜻을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

고졸채용 수기

박○○/한국남부발전(주)

안녕하십니까. 벌써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남부발전에서 근무 중인 박○○입니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남들도 다 같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쓴 이 채용수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꼭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없다. ‘기회’를 잡는 것뿐

저는 취업을 위해서 대략 2년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작성하고 지우고 찢어버린 자소서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자소서 첫 줄을 작성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잘 할 수는 없습니다. 발전이 없으니 열정은 식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기회’들을 놓쳤습니다. 노력 없는 과정을 결과는 그대로 비춥니다. 면접은 무슨, 기본적인 자소서조차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고 발버둥친 주변 사람들은 하나 둘 취업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과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기에.’ ‘무슨 이유에서.’ 저는 절실함을 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절실함이 노력의 ‘원동력’이 되고 ‘기회’가 된다고 판단했고,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3GO’라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One GO! 한번이라도 모든 것들을 보GO! 제가 말한 ‘기회’를 잡는 일은 가능한 모든 기회를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원하고 “왜?”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뚜렷한 무언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절실함이 ‘기회’를 코앞까지 가져와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누구보다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 밤낮없이 정보에 매달렸습니다. 모이면 모일 수록 살이 되고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Two Go! 자신부터 알GO!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저는 첫 번째GO를 바탕으로 첫째,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둘째, 왜 하필 그 기업인가? 이 2가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우선 충분한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역량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파악하는 데 어떤 방법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나’와 대조하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이용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생각합니다. 이 예시를 통해 특정 회사의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Three Go! 분석하GO! 내가 원하는 기업에 지원하여 불합격 소식을 통보받게 되면 그때의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발판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해서, 발자취를 적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모든 날을 써내려갑니다. 이 노트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만들어낸 실존하는 결과물입니다. 오늘 일과가 잘못되었다, 불합격소식을 받았다는 등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빼곡히 써놓은 노트를 보면서 다시 다짐하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Three Go! 계획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효과가 좋았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신만의 계획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만의 능력을 기른다면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마세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스탠바이

이번에는 몇 가지 준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행동에도 준비자세가 있는 것처럼,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데에도 기본준비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증, 성적(학업, 어학성적 등), 대내외 경험입니다.

가장 먼저 자격증입니다. 먼저 자격증은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부터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정말 가고자 하는 기업의 정보를 모으셨다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좋은지는 바로 보일 것입니다. 특정 자격증을 소지해야 지원가능한 회사도 있고, 한국사나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소지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성적은 아마 성실성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보입니다. 학업성적이나 어학성적(토익, 스피킹 등)은 시간에 비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성적을 이용해 서류전형에서 걸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스펙초월전형을 통해 성적을 제시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형이 존재하지만 성적을 관리하면서 얻은 지식들도 피와 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활동경험입니다. 활동경험은 자신이 지내온 생활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단체 활동은 팀워크와 소통능력을, 봉사활동은 그만큼의 소양을 갖추었다고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라는 단체에서 얼마나 매끄럽게 스며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교에 재학하고 계신 분들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 팀워크 등은 회사에 가서도 분명 그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꿈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준비상태가 미약하다고 해서 조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의 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하고 두드리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지 생각하고 있다면 나아갈 길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 공부, 고졸

근무를 하면서 자기개발 공부를 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졸로 입사 해서 대졸과 비교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고졸과 대졸 모두 처음해보는 업무이지만 대졸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입사 초반에는 다른 공부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해진다면 자기개발공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고졸자라면 업무를 배우는 것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배우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할 때가 되면 군대에 입대해 2년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2년 후엔 업무를 다시 익혀야겠죠.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리 잡기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지만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대충 아는 것으로 넘어가거나 질문하기 죄송하다는 생각으로 질문하는 것을 지나치면 다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공부하고, ‘질문지 3가지 이상은 만들기’입니다. 처음엔 딱히 노력이 필요 없을 만큼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3가지 이상 찾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만 쌓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 방면으로 본인을 도와줄 것이 분명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뻔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것이 진짜 뻔한 정답입니다. 저희 기업은 고졸이 많은 기업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기업에 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졸이 많은 회사에서도 고졸에 대한 편견은 존재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고졸에 대한 편견에 굴복하지 않는 고졸 사원이 되도록 합시다!

-ING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입사 후 저는 인간이 느끼는 쾌락에서도 상위계열인 깨달음의 쾌락을 줄곧 경험했습니다. 현장에서 얻은 지식을 나의 것으로 만들 때 마다 일하는 것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전공 관련하여 많은 배움을 얻어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졸 취직을 해서도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 배운 내용을 통해 회사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 그저 높은 곳만 바라보는 몽상가가 아닌 기반부터 다져서 계속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제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단점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 수 있습니다! 

8

내가 걷는 이곳이 나의 길

서○○/한국남부발전(주)

요새 뉴스에서 청년실업이라는 암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힘든 현실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당신에게 애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 ‘지친 하루’의 한 소절과 함께 여러분이 걷는 길에 자신감이 생기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

나의 학교생활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은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던 때입니다. 저는 공학도가 되고 싶었고, 제 진로에 확신이 있다면 대학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들었습니다. 조금 빨리 시작한다면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하나로 공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들께 제 의견을 말했을 때 모든 선생님이 반대하셨습니다. 다들 사서 고생한다고 하였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자며 저를 설득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열정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고, 저는 전기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공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학교생활은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1학년 때는 전공보다 국어 영어 수학이 많았고 저는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지 못해 자괴감에 빠져있었습니다. 취업이 헛된 꿈같았고, 저에게 취업은 먼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시작되면서 전공과목이 늘어났

고, 제 인생을 바꾼 과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기기기는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등 전력기기들에 관한 과목입니다. 전기기기는 공부할수록 재밌었고, 이런 설비들을 제가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면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발전소에서 일하면 제가 좋아하는 설비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고, 이런 흥미들을 바탕으로 학업 성적도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전교권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정하다

제가 한국남부발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은 카타르에 다녀오고 나서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카타르에 다녀왔고, 카타르에 대해 알아보던 중 카타르는 천연가스 부국이고 한국남부발전에서 카타르의 발전소를 공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타르에서 본 모습들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서 천연가스발전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고, 천연가스발전본부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한국남부발전에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꿈에 도전하다

한국남부발전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기 전 첫 번째 공기업 공채였습니다. 첫 공채인 만큼 제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고,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소개서를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학교생활을 하며 겪었던 경험들과 대회들, 제가 한 생각들을 솔직하게 풀어낸 결과 값진 합격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필기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고, 필기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필기시험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고 시험장을 나와서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을 느끼며 씩씩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결과 발표만을 기다렸습니다. 결과 발표 날 정말 뜻밖의 결과를 받았고, 급하게 면접 때 입을 정장을 결정하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에서는 긴장하지 말고, 회사의 선배들을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제

가 가진 생각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고, 첫 공채 합격이라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다

합격 후, 입사까지 약 5개월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생각도 정리하고 저에게 선물이라 생각하며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또한 빠른 적응을 위해 전공 공부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교육원에 입소할 때는 제가 어떤 조직에 소속된다는 설렘과 기쁨에 웃음이 자꾸 튀어 나왔습니다. 교육원에서는 공부도 하고, 동기들과 유대감도 쌓으며 열심히 공부하였고, 드디어 제가 기대하던 근무지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근무하던 열심히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하동발전본부에 발령받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2발전소 전기부에 배치되었습니다.

고졸은 장점, 강점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가장 어린 사원 중 한명입니다. 저는 빠른 년생이라 18살에 입사했기 때문이죠. 어린 나이는 회사 생활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되어줍니다. 모르는 것을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되고, 누구든 잘 가르쳐주십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나는 고졸이니 이건 몰라도 돼.'라는 생각은 앞으로의 자신과 회사생활을 모두 망가뜨립니다. 고졸의 한계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책임에 학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입사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고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회사의 직원이고, 한 사람의 동료입니다. 학교에서는 책임질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제 설비에, 제 업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무섭기도 합니다. 책임에는 학력이 없습니다. 고졸은 조금 빨리 무거운 어깨를 가질 뿐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루하루 배우는 업무에 커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항상 행복합니다. 물론 월급으로 금요일에 친구들끼리 밥을 먹고, 카페에서 제가 계산하는 소소한 행복도 있습니다. 사회에 일찍 진출했다는 부담감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저와 같은 행복을 누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길을 걸어요

지금까지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네요.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에 확신하고, 걷고 있는 길에 확신을 가져야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자국 먼저 사회에 내딛으려는 여러분의 용기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조금 늦는다고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취업 재수를 하며 1년, 2년이 너무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우리는 아직 살아온 날보다 회사에서 보낼 날들이 더 많습니다. 이번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눈이 부시도록 반짝거리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빛나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옳은 길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걷는 모든 길이 꽃길이길 바랍니다. 

IV

지역인재 채용



1

경계와 벽을 넘어 지역인재로 도약!

장○○/한국주택금융공사

지역적 소외를 극복하고 공공기관 취업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장지연대리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력 끝에 맺은 결실이기에 더 소중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채용을 준비하는 지역의 인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넘기 힘든 정보격차의 허들을 뛰어넘다

진로를 결정할 시기였던 2006년, 때마침 뉴스에서는 연일 금융 공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분명 그 때의 뉴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시기에 부산대학교에서는 금융공기업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금융공학과라는 학과가 신설 되었습니다. 금융공학과는 금융공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진로로 선택한 금융공학과에서 제공한 금융지역인재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 해외금융조사단 기회와 누리사업단 부산장학생 선발, 공공기관 세미나 참석 등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공기업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 실무자들을 통해 정확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준비 방법이나 절차를 사전에 알 수 있어서 그에 맞는 현실적인 노력

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끊임없는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금융공사 입사자, 상대적으로 금융공사에 입사한 선배를 찾아가 물어보기 어려운 지역의 한계, 하지만 저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생각으로 질문지를 만들어 주택금융공사의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바쁜 업무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직원 분께서는 자신의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금융 수업을 통해 배운 이론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기지유동화와 주택연금 관련내용들, 그리고 최근 공사가 직면한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무능력중심으로 인력을 선발하는 기준의 큰 변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가입자가 되어 상담 받는 과정에서 업무프로세스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 공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이 주택금융공사 2차 면접 과정에서 사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과 흡사해서 파악된 내용대로 잘 답변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입사 전형 당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도입 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각 기관에서 마련한 NCS관련 설명회들을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새로운 입사전형에 대비하고 주택금융공사 직원분의 도움으로 NCS에 부합하는 지식과 업무역량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입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입사를 위해 경험했던 금융공기업 부산본사에서의 인턴 경력과 주택금융공사의 사업 분석이 퍼즐이 맞춰져 전체적인 공사입사라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이전이 개인, 학교, 지역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 학교, 지역적인 측면: 지역인재가 만드는 지역균형 발전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기관 전체의 지역 적응력을 높이고, 지역인재를 우대하는 정책과 함께 지방대학의 맞춤형 인재 양성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전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은퇴금융아카데미 개최, 소프트웨어 교육, 부산은행과의 주거복지를 위한 업무협약, 부산의 교육복지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부산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택금융공사의 ‘재밋지예(才美之例) 주택·금융 강좌’와 채용설명회를 부산 대학교에서 개최하여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교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풍부한 인적자원 공유 및 기관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추어 전문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학생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서울의 광화문, 여의도로 가야만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BIFC의 조성파 우수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으로 그러한 인식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이제는 지방에서도 전 국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지역을 위해서도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선발된 지역의 인재들은 금융공사의 입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준거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의 격차로 인해 소수의 인원만이 금융공사에 입사했지만, 지역인재 우대 제도를 잘 활용한 입사자들이 많이 배출됨으로써 지역 간 정보의 격차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공사 입사를 준비하는 지역의 학생들은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선배 입사자들을 롤모델 삼아 시행착오를 줄이는 선순환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개인적인 측면: 진심을 다한 노력이 빛나길!

지역인재 채용은 분명 지방의 대학교 학생들에게는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대라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보다는 이를 장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시험이나 면접이 대부분 서울에서 진행되기에 하루 전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시간적, 비용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따라서 한번 한 번의 기회가 매우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처럼 본사가 부산인 기업들은 이를 배려하여 시험장소를 부산, 서울로 나누었는데 지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타지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시험을 치는 부담이 줄어드는 점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사입사준비를 했던 친구들 모두 목표를 이뤄 현재 BIFC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후배들에게 롤모델,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더 충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기 위해 멘토링을 통한 입사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에 입사하여 제가 나고 자란 지역사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도 더 열정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 제언: 선입견을 뛰어넘는 공정한 정책

지역인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채용 시 인원 할당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채용을 권장하고 있는 목표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선발하는 방식보다는 목표비율을 설정하여 그 비율 내에서 공사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를 우대하는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하여 이러한 선입견을 해소해 지역인재 채용의 궁극적인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산, 학, 관이 연합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양성하고 채용 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행하는

노력들이 경주되어 지역인재 선발의 본 취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2

지역인재채용, 새로운 고향 울산에 머물게 하다

박○○/도로교통공단

뜻밖에 주어진 기회, 도로교통공단의 울산 인재채용

태어난 이래로 그렇게 손을 떨었던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떨고 있었다. 2017년 6월 20일, 채용의 마지막 과정인 면접 결과를 보기 위해 핸드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던 때의 기억이다. 손이 먼저 떨리고, 이후엔 심장이 요동쳤다.

돌이켜보면 나는 왜 원주에 본부가 있는 도로교통공단이 울산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가지고 4차 산업 혁명의 총아인 무인 자동차 산업을 주관할 도로교통공단이 울산 지역 제한 채용을 한다는 것에 감사하며 원서를 썼을 뿐이었다.

서울 지역처럼 선배 또는 지인들을 통해 취업 관련 지식을 얻기도 어렵고, 대학이 두 개밖에 없어 채용 박람회에서도 자주 제외되는 울산이었지만 원서를 쓰는 그 순간만큼은 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2009년에 신설된 학교인 UNIST에 2기로 들어가 대학 자체의 적은 취업 노하우와 부족한 선배들의 조언 속에서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 나옴에 더더욱 그랬다. 연구 중심의 대학에서 연구실 생활을 하고, 영어로 전 교과수업을 듣고, 학생 컨설팅 단체에 소속되어 기업 컨설팅을 하는 등 나름 충실한 생활을 했지만 취업에 맞춘 대학 생활은 아니었던 것을 여러 회사에 낙방하며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 이어진 낙방에 좌절하고 있던 내게 찾아온, 적어도 비슷한 도시 환경에서 대학 생활을 보냈을 울산 소재 졸

업생들만이 대상인 전형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홈페이지에서 ‘합격’이라는 파란 글씨를 확인하고, 54명의 신입 직원 중 한명으로 참가한 직무 교육에서 나는 원주뿐만이 아닌 울산에서도 지역 인재가 채용된 이유를 들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영, 안전, 교육, 방송, 운전면허 총 5개 본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2011년 운전면허본부로 통합된 기존 ‘운전면허시험 관리단’이 통합 이전에 울산 이전을 약속했기에 울산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운전면허 본부가 2016년 탄생했다.

공공기관의 지역 균형 발전 역할에 충실한 도로교통공단은 울산에서도 지역인재 채용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내가 최종 채용이 된 것이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고, 그 기회를 손에 쥔 것이 나라는 사실에 새삼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신입 직무 교육을 마친 7월 3일, 드디어 내 울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근무가 시작되었다.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울산운전면허시험장

신입 직무 교육에서 서로를 소개하던 중, 으레 그렇듯 학교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울산과학기술원 나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었다. 나에게 질문을 했던 경력직 누나와 같은 테이블의 동기들의 표정이 미묘해졌지만 나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넘겼었다. 그 미묘한 표정의 의미는 다음 날 알 수 있었다. 그 누나가 다른 동기와 이야기하던 중, “그 친구는 처음 듣는 이상한 대학교 나왔다더라.”라고 소개를 했던 것이었다. 다행히 당시 같이 있던 동기가 모교를 알고 있어 나름 좋은 학교라 알려주었고, 나도 신생 학교이기에 모를 수 있다고 함으로써 하나의 해프닝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반면 내가 근무하게 된 울산운전면허시험장에선 오히려 내 모교를 먼저 알고 다가오는 선배들이 많았다. 적어도 울산에서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모교였기에 먼저 관심을 가져 주었다고 생각한다.

“공부 잘했겠네.”라는 선배의 첫인사를 들었을 때 ‘아, 이게 지역인재의 장점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배들에게는 그 지역사람이기에 신입 직원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할 계기가 되고, 신입직원에게는 모교를 알아봐주는 사람에 대한 뿌듯함, 그리고 모교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픈 마음이 한데 섞여 더 열심히 일할 동기가 될 것 같았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잘 아는 대학의 학생을 뽑으니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입사 후에는 소속감을 끌어올리기 좋은 제도라는 것을 체험한 순간이었다. 전산 관리 및 자산 관리, 사회 공헌 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배정받아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내 행동 하나하나가 모교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리라는 생각에 열심히 일한 결과, 나는 2017년 도로교통공단 채용형 인턴의 전환식 대표 및 우수 인턴으로 뽑힐 수 있었다.

지역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울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맡은 업무 중 단연 가장 흥미로운 업무는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지방 기관들에게 지역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인재로 채용됐기에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사회공헌 활동 중 내가 주목한 것은 중소기업 동반 성장이었다. 이를 위해 처음 고려한 중소기업은 내가 학창시절 컨설팅 하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였다. 울산이라는 지역적 이점을 살릴 수 있고, 도로교통공단 고유의 업무와도 잘 맞는 듯 했다. 아쉽게도 예산상의 이유와 너무 먼 거리로 인해 해당 기획은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예산과 시험장 방문객들에 대해 고심한 결과 색다른 기획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운전면허시험장은 면허 발급이라는 특성상 산출 가능한 인원이 방문하기에, 이를 활용한 홍보 계획을 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시험장에 홍보해 가장 효과적으로 혜택을 볼 기업들을 모색하던 중, 모교의 교수님으로부터 울산 지역의 스타트업 기업(청년 창업 기업)들이 홍보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울산 창업 혁신 센터를 통해 우수한 창업 기업을 소개 받고, 해당 기업의 홍보 담당 직원과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을 고민하였다. 그 결과, 시험장에 이미 비치되어 있던 대기 민원인용 PC를 홍보부스로 탈바꿈 할 수 있었다.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활용해 모니터를 꾸미고, 홍보용 포스터를 부착하고, 배경화면으로 기업의 홍보물을 적용했다. 대기 민원인이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띄워질 중계 사이트 또한 설립했는데, 민원인이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그리고 포털 화면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방문할 수 있게 만들어, 무분별한 홍보가 되지 않도록 고려한 결과였다. 이 동반성장 활동은 도로교통공단 내부 과제로 선정되어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지역에 관한 지식을 살려, 울산운전면허시험장이 지역사회에 더 밀접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나의 새로운 고향,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고향

지난 일 년간, 취업준비를 하며 애가 많이 났다. 결과적으로는 원래대로라면 해당되지 않았을, 지역 제한경쟁의 대상자로서 채용되었으니 이 지역인재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내가 아닌가 싶다.

과밀화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 정부가 역설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젊은 층에게 지방으로 갈 매력을 제시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도시에 계속 살다 보면 애착을 가지게 된다. 2010년 봄, 대학 기숙사에 짐을 던져 놓을 때만 하더라도 마트의 위치도 모르던 내가 지금은 택시 기사들만 안다는 맛집을 흔히 쫓 정도로 울산 사람이 된 것을 보면 분명하다. 이번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그저 익숙함에 만족하던 나에게 ‘너는 그저 머물다 가는 사람이 아닌, 우리 울산의 가족이야.’라는 가족인증서가 주어진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공공기관이, 면피를 위한 제도가 아닌 진정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지역인재채용을 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내가 그랬듯이 많은 사람이 새로운 자신의 고향을 만나고 손을 떨며 합격하는 기쁨을 맛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3

메마른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한 세 가지 노력

신○○/한국농어촌공사

대학을 다니면서 동기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 너 전역 전에 취직한다!’, ‘나 졸업하기 전에 취직할거야!’

남자동기가 입대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전역하고 취업턱 얻어먹으러 오라며 배웅했고, 함께 수업을 듣던 동기들에게 졸업 전에 취직할거라고 주문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준비를 시작하려던 차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은 명성만큼이나 입사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전지방인재를 우대한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고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대생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었던 세 가지

1. 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하라!

지방에서 취업준비를 하려다 보니 서울 및 수도권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 취업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을 순 없었습니다. 이에 제가 택한 방법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공공기관의 채용방식이 NCS형식으로 바뀌어가는 시점일 뿐더러 지방이전까지 하다 보니 학교에서도 공공기관과 관련한 많은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학교홈페이지나 학교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를 보며 어떤 기관이 취업설명회에 오고, 어떤 유형의 취업프로그램이 개설되는지 미리 살펴며 필요한 내용을 체크했습니다.

학교로 직접 방문하는 취업설명회나 이전지역 합동 채용설명회는 같은 학교출신 또는 같은 지역출신의 선배 직원이 오기 때문에 좀 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위치에 있었던 선배의 취업후기이기에 와 닿고 ‘나도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NCS기반 채용에 대해 경험해보거나 아는 주변 사람들이 별로 없어 특히 학교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NCS전문 강사가 강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NCS기반 채용이 무엇이고, 서류-필기-면접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런 강의를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적용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했습니다. 강의에서 들은 대로 NCS형 자기소개서를 쓰고 전 인사담당자에게 첨삭을 받거나 학교에서 상시 운영하는 글쓰기 첨삭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취업을 꿈꾸는 학생들과 함께 팀을 꾸려 모의면접프로그램에 참가해 전 인사담당자의 코칭도 받았습니다.

2. 온라인 카페를 활용해라

대부분 학교에서 정보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얻지 못한 정보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얻었습니다. 사실 학교로 오는 취업설명회나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취업 정보는 학교 근처로 이전해온 공공기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외 기업의 취업설명회는 온라인 카페 설명회 동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채용프로세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있어 내가 지원할 회사는 언제 채용하고 각 기관마다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비교가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필기후기, 면접후기가

많았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전반적으로 NCS기반 채용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각 기관마다 유형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후기를 통해 어떤 유형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습득했습니다.

3. 스터디모임을 해라!

마지막으로 스터디모임을 꾸리는 것입니다. 제가 스터디 모임을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실전처럼 연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사람들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면접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전처럼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스터디에서 면접관과 지원자가 되어 직접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며 모의 연습을 했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민 되는 질문에는 어떤 대답이 좋은지 의논했습니다.

둘째,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의 취업준비를 하다 보니 매순간 열정적으로 할 수 없었고, 붙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아지다 보니 심리적으로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스터디모임에 참석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보며 힘을 낼 때도 있었고, 함께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힘든 순간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미친 긍정적인 영향

1. 개인적 측면

개인적으로는 막연했던 취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전해 온 공공기관의 채용설명회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희망하는 업무에 대해 경험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 청년인턴이나 단기아르바이트에 지원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했습니다.

일례로 작년 여름, 취업준비를 하면서 우연한 계기로 이전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었고, 관련 정보를

습득하며 구체적인 취업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2. 지역학교 측면

이전 공공기관과의 MOU체결을 통해 연구, 대학원,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교류하면서 학업의 질, 취업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합동연구를 하면서 학교에는 연구 성과를, 기관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와의 만남, 모의면접 등 직접 담당자를 만나는 기회가 많아져 기관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대학에 공채 및 인턴채용에 대한 가점 적용으로 학생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호하는 대학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지역경제 측면

젊은 사람들의 유입과 지역인재들의 정착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약 2만 7천여 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000여명밖에 안 된다는 통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타지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KTX나 근교를 잇는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과 어른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취업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가는 지역인재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오히려 지방에 남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젊은 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수요와 꾸준한 소비를 늘게 해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방으로 분배되어 고른 성장을 하도록 돕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마음가짐의 중요성

저는 약 1년간의 취업준비를 하면서 50여 군데에 입사지원을 했고, 그 중 서류 합격은 30%, 필기 합격은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왜 떨어졌는지 의문을 가졌

지만 그 이유를 절대 지방대학생이라는 것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 자기소개서와 필기공부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연습하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 이를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나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누구보다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내가 바로 우리 지역인재

좌○○/공무원연금공단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는 젊은이들

“제주도는 공무원이 최고야, 공무원시험 준비하려고.” 같이 취업을 준비하던 동기들이 하나 둘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저학년일 땐 몰랐던 높은 취업시장의 문 앞에서 다들 좌절하며, 하나 둘 지방직 공무원을 노리며 고시의 길로 들어간다. 이 상황이 제주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는 특히 취업 시장이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나마 제주도에 지사가 있는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지역을 분류해 채용하지만 그마저도 한두 명을 뽑는데 그치고 만다.

나 역시 여러 기업에 입사서류를 넣었지만 필기시험조차 보지 못하고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분명 나에게 부족한 점이 많아서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지방대’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전국 단위로 채용하는 기업을 제외하면 제주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업도 별로 없다. 그래서 나 역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은 적도 있었다.

그러던 중 공무원연금공단 본사가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지역인재’로 채용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 때부터 공무원연금공단에 입사하기 위해 필기시험 등을 준비했다.

한 번의 고배를 마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입사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던 중 드디어 상반기 채용공고가 올라왔다.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원서를 제출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류전형 합격을 확인했을 때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결과는 필기시험에서 탈락. 시험문제가 어렵기도 했지만, 제주도 사람끼리 따로 경쟁을 한다는 사실이 나를 안일하게 만든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그렇게 지역인재 채용을 만만하게 생각하던 나 자신을 호되게 다그치고, 다음 기회를 위해 다시 필기시험을 준비했다. 운 좋게 몇 달 지나지 않아 하반기 채용을 한다는 공고가 올라왔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준비를 한 결과, 하반기 채용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최종합격을 할 수 있었다.

좌절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지역인재채용

처음에는 발걸음 하나에도 신경을 쓰며 걷고,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두근거려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전화를 받던 내가, 이제는 제법 당당하게 걷고,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는다. 이렇게 공무원연금공단에 입사한지도 어언 3개월이 넘어간다.

“제주전형으로 입사했구나, 이 지역에 대해 잘 알 테니 잘 부탁한다.” 처음 입사했을 때 들었던 말이다. 지역인재로 공단에 입사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스펙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또한 나에 대한 인식이 제주도, 더 나아가 나의 후배들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했다.

내가 꿈에 그리던 공무원연금공단에 입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인재채용 덕이다. 지역인재채용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같은 지역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것이다. 같은 지역사람들끼리 경쟁한다는 것은 학력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학교’와 같은 겉모습이 아닌 나의 본모습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그 지역의 대학교나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취업을 한 이후에도 지역을 옮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역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유출을 막아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때

이러한 지역인재 채용이 많이 확대될수록 지역별 채용박람회를 많이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는 특히 취업정보도 기회도 부족하다. 채용박람회가 거의 서울에서 열리므로 박람회에 한번 가려고 해도 비행기 샅에, 시간에 비용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다. 인터넷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정보만을 얻는 것은 큰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채용박람회 개최 장소를 확대해 지방 사람들에게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N서울? 이제는 IN지방으로!

‘IN서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서울에 가야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좋은 기업에 취업도 하고 성공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방법이 많이 확대 된다면 이런 분위기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면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현상도 줄일 수 있고, 지역인재들이 출신 지역에서 활동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살아 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 비율을 30%까지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힌 나의 입장에서는 후배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쁘지만, 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 그들도 그들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더니, 지방대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며 채용을 하니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학력중심의 사회를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대학을 나왔든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하여 준비한다면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에 당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회가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인재채용’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지방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틀림없다. 또한, 지역인재채용은 학력위주의 채용을 바꿀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인재채용이 많이 확대되어, 나처럼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지만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5

나는 뽑히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지원했다

윤○○/신용보증기금

“우리 학생들이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일했으면 좋겠어.”

대학교 3학년, 투자론 수업을 담당하시던 교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문과 출신 동문들이 대기업을 간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니, 지역 인재를 조금이나마 우대하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눈을 돌리라는 뜻, 지방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는 손꼽히는 직장에 들어가 인정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신 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두 차례에 걸쳐 도전한 결과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하여 선망하던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융 공기업 입사는 그저 꿈이라 여겼던 저는 어디든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지원하는 취업을 위한 시행착오를 거쳐, NCS 도입이라는 큰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뽑히기 위해’ 공공기관에 도전했습니다.

‘지방대 출신은 정말 취업에 불리한 걸까?’

4학년에 접어들면서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한 채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채, 대부분이 그렇듯 대기업, 공공기관 가리지 않고 지원하였습니다. 서류 탈락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일 년 이상의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친 제가 내린 답은 “지방대생은 서류부터 탈락”은 사실이 아니나, 다만 서류합격의 벽이 조금 높을 뿐입니다. 오히려 서울 위주인 시험장과 면접 장소로 인해 장거리 이동의 수고스러움과 함께 지역적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입

니다.

한 번의 필기시험의 기회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서류 합격률이 높고 대다수에게 필기시험의 기회를 주는 공공기관으로 자연스레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나에게 맞는 직무를 찾다

NCS 기반 자기소개서가 도입되면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묻는 문항이 등장했습니다.

대학시절 한 달을 고생하며 끝낸 ‘중국 동풍 자동차 재무제표 분석 과제’ 에피소드는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을 묻는 문항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매출액에서 자동차 완제품, 부품 판매액 비중을 파악해 실질적인 자동차 완제품 판매액을 통한 시장 내 입지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던 경험은 A+ 학점뿐만 아니라 지원서의 좋은 소재가 되었고, 주어진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직무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직무기술서로 방향을 잡다

공공기관은 채용 공고문과 함께 직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직무기술서를 게시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직무기술서에는 당연히 신용조사, 신용도라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합니다.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신용’이라는 개념이 이 직무를 위해 이렇게나 중요한데, 마음에 와 닿지 않으니 난감할 따름이었습니다.

처음 신용보증기금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후,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신용 분석’을 이해하고자 저만의 신용보증기금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4개월에 걸쳐 신용 분석사, 중소기업 금융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체험형 인턴 면접과 신입 채용 면접에서 “재고자산 회전을, EIBTDA 이자보상

비율”의 질문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결코 아깝지 않은 투자였습니다.

Connecting The Dots

어떻게 신용보증기금을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2012년 ‘부산 중소기업 일자리 박람회’개최를 위해 30명 남짓의 대학생들이 모여 6개월간 함께 준비하던 그때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왜 구직난, 자금난에 시달리는지, 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많은 것인지 궁금해 하던 것이, 이렇게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기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도전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용보증기금 체험형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동시에 두 번째 신용보증기금 신입 채용에 도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할 때는 그저 지방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내가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하기 위한 준비한 나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두 번째 도전 끝에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른 기업에서 저는 서류전형조차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취득한 자격증들도 쓸모없다고 여기는 곳도 많을 것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선택의 기준은 가능성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필기를 칠 수 있는 가능성, 내가 다져온 것들을 보여줄 기회가 많은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뽑히기 위해 공공기관에, 뽑히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한지 9개월이 지난 지금도, 가끔 교내 취업동아리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취업 커뮤니티에 들어가 글을 읽습니다. 그중에서 “지방대생인데 금융공기업 가능할까

요?”라는 글을 볼 때면 지난날의 제가 생각납니다.

‘공공기관 본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인재 할당제, 블라인드 채용’ 등 점차 지방대생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 취업을 준비하던 저를 위축되게 했던 “지방대 출신은 서류부터 탈락이야”와 같은 말들을 가뿐히 무시할 수 있는, 이때껏 쌓아왔던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자신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뽑히기 위해’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6

지역인재로 입사 그리고 지역전문가로 성장

배○○/신용보증기금

3전4기

'14년 최종면접 탈락, '15년 필기전형 탈락, '16년 상반기 인턴면접 탈락, 그리고 '16년 최종합격. 인턴경험, 자격증, 높은 어학점수, 교환학생 경험 등 화려한 스펙은 없지만 입사하여 현재 경산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高스펙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인재 준비

2014년부터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 취업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서는 3,600의 법칙[4.00(학점)×900(토익점수)]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3,600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았고, 동시에 전공시험 준비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 만큼 최종면접까지 이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지만, 이 경험을 밑거름 삼아 다음해에 도전하면 입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2015년 채용절차가 NCS 직무능력중심채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지원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채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채용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겠어?'라는 생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준비하여 지원한 결과, 필기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직무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에 대비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취업준비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지원직무에 대한 경험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동시에 NCS필기시험 준비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직무에 대한 직무능력이라는 것은 취업준비생에게는 생소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흐릿한 얘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인턴 경험도 없는 저에겐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에서 배포한 직무기술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신보의 업무와 매칭시키다 보니 ‘데이터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무·비재무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보증심사에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단순 재무비율 분석에서 벗어나 미래에 신보가 나아갈 방향을 고려하여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우기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기초를 세우기 위해 과거 수강했던 통계학, 계량경제학, 시계열분석 교재를 다시 읽으며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습니다. Johns Hopkins 대학의 무료 온라인 강의를 통해 R언어를 배웠고, KAIST KOOC에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강좌를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국은행, 통계청, OECD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San Francisco 범죄분석’ 등 다양한 분석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우대 사실에 추가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역인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해당 지역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앞서 키워왔던 분석능력을 토대로 대구지역경제에 대해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앞서 당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주최한 ‘대구 지역인재 유출’, ‘지역중소기업 활성화’라는 주제의 지역경제세미나에 참관했습니다. 어떠한 자료를 수집·활용했는지, 어떠한 분석방법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정책적인 의미를 도출했는지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구의 인구유출입 분석’을 진행했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구의 인구구조 및 경제현황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무경험활동들을 '16년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면접전형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지역인재로 지원한 탓에 면접위원 분들께서는 특히 ‘대구 인구유출입 분

석'에 관심가지셨습니다. '가설 및 독립변수 설정', '대구 지역경제와 관계 그리고 정책적 의미' 등 세부적인 질문을 하였고,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직무능력과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까지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 최종 합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Opportunity Creator

신보가 대구혁신도시로 이전은 대구지역의 대학생 및 대학에 긍정적이었습니다. '14년 신보 입사준비를 할 시기에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주로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캠퍼스 리쿠르팅 기간에 채용설명회를 했지만 기회는 1번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구로 이전한 후에는 현장 채용설명회의 접근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도 현저히 늘어나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사 아르바이트 기회도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서울에 연고가 없는 지역소재 대학생들이 서울본사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지방이전으로 인해 본사의 다양한 부서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게 됨에 따라 지역소재 대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본사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학생들은 신보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인재로써의 기본

지역인재채용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인재라는 이유만으로 우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지원자들에게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인재가 말 그대로 타 지역 지원자들에 비해 해당지역에 대해 면밀하게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직무능력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흔히 말하는 역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취업준비생들에게 무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역인재에 한해서는 추가적인 면접전형을 두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해당 전형에서는 지역소재의 실무자 및 본부장님들

이 참여하여 지역경제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던지 또는 토론면접 등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자들이 힘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면접전형을 통과한다면 누구보다 떼떈하게 지역인재채용에 합격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지역인재 채용제도, 지역 청년들을 비추는 희망의 빛

김○○/한국주택금융공사

지역 청년들이 취업 준비 중 겪는 어려움

나는 작년부터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준비하던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고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하였는데, 눈앞이 캄캄했다. 지방대 졸업생에 사회과학계열을 전공하고 인턴·대외활동 경험도 없는 취업준비생이 두드릴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 전공필기시험처럼 실력과 관계된 역량은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겠지만, 지방에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겪는 환경적 어려움은 상당한 제약이었다.

1. 환경적 제약: 정보의 제약

정보의 제약은 지방 취업준비생을 힘들게 한다. 채용 시즌이 시작되면 수도권에서는 한 기업이 여러 번 채용설명회를 열기도 하는데, 지방에서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선배들로부터 정보를 얻으려 해도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2. 환경적 제약: 제한된 인적 교류

인적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점 역시 주된 난관이다. 부산은 수도권에 비해 대학 수가 적다보니 취업준비생의 풀(pool)이 얇다. 서울에서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인터넷 게시판에 스터디 모집 글을 올리면 하루도 안 되어 마감되었고, 비슷한 실력과 목표를 가진 사

람들을 모으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방에서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최소로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고 유지하기에도 벅찬 경우가 많았다. 전공필기 실력이 비슷하고 지원하는 기업이 유사한 스터디를 찾는 것은 이루기 힘든 희망이었다.

요즘 대다수가 준비하는 기본적인 ‘스펙’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적 제약들이 발목을 잡다보니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역인재채용제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런 어려움을 상당히 해소해주었다.

지역인재채용제도의 효과

1. 정보의 제약 해소 및 인적 교류 활성화

지역인재채용제도와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이루어지면서 지역인재들에게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① 본사가 지방에 소재해 있으므로 채용설명회부터 부가적인 강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또한 먼저 입사한 선배들이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에 남아 있어서 후배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③ 다음으로, 산학협력이 강화되어 관련 교과 수업이 개설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특강도 제법 잦아졌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직면했던 정보의 제약을 걷어낼 수 있고, 지역인재들 간 교류 및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높아졌다. 실제로 내가 입학했을 때에 비해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입사를 목표로 하는 학우들도 많아졌고, 지금은 1~2학년 때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목표로 역량을 쌓는 후배들도 많다고 한다.

2. 지역인재의 도전 의식 고취 및 동기부여

공사 입사를 준비하면서 공사가 지역인재채용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 의식을 키웠다. 채용설명회에서 지역인재 목표채용비율이 35%라는 설명을 듣고 충분히 수혜를 보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면 본사가 위치

한 BIFC를 산책하거나 BIFC 금융강좌를 수강하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잡고는 했다. 지역인재채용제도가 없어서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서울에 본사가 있었다면 이런 식의 동기부여는 어려웠을 것이다.

3. 지역에 머무르고 싶은 지역인재의 소망

지역인재 입장에서라도 자신의 출신 연고지에 터 잡고 싶은 마음이 크다. 우선 연고지를 벗어나면 주거비·생활비 지출이 대폭 늘어난다. 그리고 가족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취업 이후 갑작스럽게 기존의 관계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반가워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역인재채용제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 주고 있다. 출신 지역에서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연고지에 남아 가족을 부양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인재채용제도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1. 지역인재의 역량 강화 지원 및 교육 격차 해소

지역인재채용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에 입사한 후 업무적으로 유능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동 제도의 타당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 또한 각종 교육 인력,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 역시 해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인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산학협력이나 대학원 이상에 한정되는 교과 과정이 아니라, 학부 수업에서부터 공공기관 직원이 적극 참여하는 수업 과정이 필요하다.

2.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폭 넓은 정보 공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한층 더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주택금

용공사에서는 홈페이지에 상품 설명 및 기업 소개, 연구보고서부터 공사 내규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굳이 아는 사람이 없어도, 정보가 모이는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기업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자기개발 계획을 묻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공개된 경력개발 제도 및 시험 제도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 대학을 방문하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알리오(Alio) 등을 통해 보편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유효한 대안이다.

3. 균형발전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지역인재채용제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기초한 만큼,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억제하고 지방대학을 발전시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지역인재채용제도가 공공부문에서 시행된다는 사실만으로 수도권으로의 지역인재 유출이 억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의 주거·교육·문화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고 민간 기업들의 지방 이전, 지방 향토 기업의 발전 등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인재채용제도를 비롯한 여타 균형발전정책이 함께 보조를 이루어야 궁극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 지역인재로서 갖는 책임감

소득·자산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등 각종 양극화의 시대에서 지역 청년들은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와도 싸워야 한다. 지역인재채용제도는 지역인재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위축을 견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최근 여러 공공기관에서 동 제도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서 지역 청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인재채용제도의 당사자로서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갖고자 한다. 지역인재채용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스스로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에 기여하는 바도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인재채용제도의 순기

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다. 

V

시간선택제 일자리



1

워킹맘이 행복한 일터

김○○/근로복지공단

첫 직장의 차가운 기억

대학교 졸업 후, 입사하였던 첫 직장에서 임신과 출산 후 아이를 돌보며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오며 생각했었다. ‘남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 졸업하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였지만 내가 정을 돌봐야 하는 엄마가 되는 순간 회사와 나의 갈 길이 이렇게도 달라지는구나.’ 그 날,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길은 참으로 씁쓸하고 공허하였다.

근로복지공단과의 첫 만남

그렇게 아이와 함께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아이가 조금씩 커갈수록 내 마음 한 편에서도 사회 속에서의 온전한 ‘나’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워킹맘을 위한 여러 가지 유연근무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NCS 기반 채용으로 변화된 채용 제도에 맞춰 준비를 한 덕분에 2014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시 한 번 온전한 ‘나’로 사회에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엄마와 신입사원의 무게

그렇게 입사 후 업무를 배우며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고, 2살이었던 딸아이는 지방

에서 손녀딸 양육을 위해 올라오신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이는 생각보다 적응을 잘 해주었지만, 하루 종일 함께 했던 엄마의 품을 떠나 저녁에 잠시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여겼는지 이제 막 배운 단어들을 종알거리며 “엄마를 실컷 못 봐서 너무 슬퍼” 라고 말하곤 하였다. 또 야근이나 회식 등으로 퇴근 시간이 늦어질 때면, 아이 또한 잠들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날이 많았는데, 그런 아이의 마음이 안타까워질수록 회사에 출근하는 나의 발걸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회사 생활만을 생각하면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이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내가 다시 취직을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인지에 대해 고민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던 중, 양육을 맡아주시던 친정어머니의 건강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어 갑작스레 내가 아이의 주 양육자가 되었다. 사실 친정어머니가 양육을 해주실 때도 퇴근 후 아이의 목욕, 저녁 밥 챙기기 등의 케어는 나의 몫이었지만, 친정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아이의 등하원 등의 주요 일정도 내가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전에는 정서적으로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내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하였다면, 이제는 물리적인 시간에 있어서도 쫓기는 입장이 되어버리니 그 당시에는 회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다. 이런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라 누구에게도 선뜻 털어놓지 못했는데, 신입사원 교육 때 멘토를 맡아주신 과장님과 가지게 된 식사자리에서 내가 처한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다. 그 때 멘토 과장님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시간선택제 근무신청이었다. 사실 입사 전부터 사내에 여러 가지 유연근무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신입사원 입장이 되어보니 그 근무제도를 신입사원이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되어 신청은 망설이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고심 끝에 일정기간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오전 9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하는 시간선택제 유형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이와 함께하는 저녁의 행복

처음 시간 선택제를 신청하였을 때는 ‘그래, 딸아이와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어보자. 아이가 커가면서 상황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라는 작은 바람에서였다. 지금 와서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시간적 개념으로는 단지 ‘2시간’ 일찍 퇴근하여 아이를 유치원에서 직접 하원시킬 수 있게 된 것 뿐이지만, 그 2시간 덕분에 아이와 여유롭게 하원길을 걸을 수도 있고, 소중한 저녁시간을 함께 가지게 되었으며, 해가 지기 전 엄마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딸아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일을 하면서도 아이의 성장을 가까이서 함께하며 많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이와 나, 우리가족 모두에게 생각보다 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시간 선택제 근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와 나의 안정적인 관계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는 아이의 유치원 생활 태도도 더 적극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나 또한 업무 시간 중에 업무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주변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이 시간에 직접 아이를 데리러 올 수 있는지 물을 때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기사에서만 보던 제도인데 그걸 진짜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요? 아이엄마가 다니기에 딱 좋은 직장이다!”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처럼 내 자신과 가정의 양립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한층 높아지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근무 환경 개선 등으로 높일 수 있는 근무 만족도와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직장에서 내가 맡고 있는 업무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여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민원 업무인 것도 나에게겐 행운이라 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한 고민들

물론 내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주변 동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한다. 내 퇴근시간 이후 걸려오는 전화응대 등은 결국 동료들이 대신 해주어야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직된 조직문화가 대다수인 우리 사회에

서 좋은 제도이고, 필요한 제도인걸 알면서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하였을 때 동료 직원들의 배려와 팀장님의 지지가 없었다면 나 혼자만의 생각에서 끝났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시간선택제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기존의 정규직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할 때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인력채용 제도 등을 통해 현재 제도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취약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가능한 사회를 위해

얼마 전 기사를 보니,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3% 가량인 생산가능인구가 2040년이면 56%로 줄어들 전망이며, 그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경력 단절녀, 일명 ‘경단녀’라고 하여 국내 30대 기혼 여성 10명 중 4명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탈출구로 ‘시간선택제’ 등의 유연근무제도 활성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경력단절여성 중의 한 명이었지만, 근로복지공단 입사 후 시간선택제 활용을 통해 ‘워라벨’을 맞출 수 있게 되었지 않은가?

끝으로 나의 부족한 글이지만,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하여 직장가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2

나는 행복한 삼데렐라, 시간선택제 직원

김○○/(주)한국가스기술공사

들어가며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겨울 우리 회사는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정규직 12명을 채용하였고, 2017년 현재 회사로서는 두 번째 시간선택제 정규직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금번 시간선택제 채용은 우리 회사에서 ‘시간선택제’ 라는 제도가 사장(死藏)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드디어 같은 직종의 후배를 만나게 된다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일? 육아? 시간선택제로 고민 해결~!

대학 졸업 후 민간 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는 이 땅의 수많은 여성들이 그러하였듯 결혼 후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경력단절여성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 저는 아이를 제 손으로 직접 키우고 싶은 마음과 다시 사회로 나가 일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늘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포기할 수 없으며, 어느 한 쪽을 선택했다고 해서 다른 한 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기에 저의 고민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의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그 당시 제게는 다소 생소했던 ‘시간선택제’ 직원모집이라는 공고를 운명처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선택제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인터넷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면서 웬지 마치 저를 위한 일자리처럼 느껴져 가슴이 쿵닥쿵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다시 일하고 싶고, 아이도 제 손으로 키우고 싶은 저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낮잠시간에 틈틈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준비 하는 게 힘들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는 그 어느 순간보다 기쁘고 가슴 벅찼습니다. 그리고 제 이런 간절함이 통했는지 2014년 크리스마스 전날 밤 선물처럼 최종합격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조직, 새로운 일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어느 신입사원과 똑같이 저는 다시 시작하는 회사생활을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식 첫날 저와 같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동기들도 만나게 되었는데, 3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하였지만 모두 사회생활 경험도 있고 행복한 가정의 아내와 엄마로서 훌륭히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하는 사회생활의 간절함과 열정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였습니다.

동기들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유관 경력자들도 있었고, 교사나 저처럼 일반 회사원이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력 등에 따라 여러 부서로 배치 받았는데, 회사의 여러 부서에 포진되어 있는 동기들이 있기에 새로운 직장도 처음해보는 업무도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현재까지 저는 인사노무처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시절 중국어를 공부하고 국내 한 여행사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업무를 했던 제게 인사업무는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생소한 업무였습니다. 게다가 전공 또한 관련학과가 아니어서 부수적인 회계처리 업무나 인사시스템 이용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고 일상적인 일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었는지 아마도 새

로운 환경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에 대해 두려움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해 두해가 가며 때로는 조금 지치고 피곤할 지라도 퇴근시간이 되면 제가 하여 눈치 볼까 먼저 챙겨주는 배려심 깊은 팀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제게는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시간선택제, 아직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소중했던 동기들 중 몇몇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서로 다른 출퇴근 시간과 한정된 시간의 업무수행으로 대부분의 전일제 직원들에게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로 느껴졌을 것이고, 동기들 역시 본인이 생각했던 업무가 아니거나 전일제와 다른 대우에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제 경우는 팀장님께서 제게 적합한 업무를 찾아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셨고, 처장님은 조그만 말씀 한마디라도 용기를 주시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려 애쓰셨습니다.

이러한 관심으로 저는 팀 내에서 비교적 많은 업무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채용, 징계 및 포상 관련 지원업무를 하였고, 서서히 인사기록관리, 유연근무제 운영, 보안업무관리와 같은 독립적인 업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경험한 것은 우리팀 동료들의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도 회사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팀 모두가 고민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서에서라면 바쁜 일상에서 대다수의 전일제 직원들 사이에서 한 명의 시간선택제 직원을 배려하기도, 적합한 업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짧은 시간을 일하는 직원일지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직원을 인정하고 배려한다면 그런 직원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조직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과 육아만? No, 이젠 자기개발까지!

올해 봄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편입하였습니다. 인사팀에서 일하면서 학문적 지식의 필요성도 느꼈고, 언젠가 현 시간선택제 제도가 더 발전한다면 제 손으로 직접 어떠한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일도 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회사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으며, 한 개인으로서 자기개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기들 사이에선 시간선택제를 ‘삼데렐라’라고 부릅니다. 신데렐라는 12시가 되면 집에 가야 하지만 저희는 3시가 되면 퇴근하기 때문에 별칭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간선택제는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양육의 기쁨과 일하는 보람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일자리이고, 덕분에 저는 행복한 삼데렐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여러 방향으로 확대되어 저와 같은 고민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3

안성맞춤 시간선택제, 점점 좁아지는 시간선택제의 문턱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대책 필요)

이○○/한국주택금융공사

안성맞춤 시간선택제

2014년 봄날, 저는 첫 아이를 낳고 100일의 출산휴가와 1년 조금 남짓 못 채운 육아 휴직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직했습니다. 복직 할 당시 매스컴에서는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때마침 그때 다큐멘터리를 통해 아이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은 엄마와의 애착을 통해 형성되며 3년 동안 가장 크게 발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 육아휴직은 1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육아를 하다 보니 아이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말은 하지도 못할뿐더러 너무나도 작았기에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이 3년이라던데 너무 부럽다, 아직 우리사회에서 신랑이 육아휴직을 쓰면 안 되겠지 등등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냉정하죠.....

저에게는 더 이상의 육아휴직은 남아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당시 제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을 받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복직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때, 망설였을 때 ‘직장을 바로 그만 두지.’ 라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전 누구보다도 직장을 사랑하고 일도 적성에 맞았기에 바로 그만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저는 직장에 다시 복직할 수 있다는 기쁨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감이 교차하듯 직장에 복직했으나 아이는 엄마를 계속 필요로 하였고 저는 눈물을 머금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15

년에 둘째를 낳고 시간은 점점 흐르며 내가 아닌 아이들의 엄마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기왕 아이를 잘 키우자고 생각한 거, 저의 넘치는 에너지를 모두 육아에 올인하고자 마음먹고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며 키웠습니다. 한편 저는 전 직장 동료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었는데 “누구누구는 승진했다.” 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면 육아를 잘 하다가도 웬지 저도 모르게 허망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전 ‘아이가 둘씩이나 있고 친정엄마나 시부모님이 같은 부산시에 계시지 않으니 오랫동안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일하러 다시 다녀보자’고 마음을 다독이곤 했습니다.

한편 올해 둘째아이가 시기적으로 기관에 갈 수 있게 되자 저 또한 다시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일제 일을 시작한다면 두 아이의 육아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종종 매스컴에서 들어왔던 ‘시간선택제’ 라는 제도가 제게 딱 맞춤인 것 같았습니다. 신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무게의 짐도 조금은 털어주고 우리아이도 키우면서 직장에 대한 갈망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저의 한줄기 희망의 빛줄기라고나 할까요. 저는 그래서 ‘시간선택제’ 취업의 목표를 세우고 다시 2008년 대학졸업반이던 취업 준비생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몸은 30대지만, 마음만은 20대의 일명 취준생의 마음으로 말합니다. 아이들을 재워놓고 자기성찰을 토대로 자기소개서도 작성하고 시험 준비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의 면접을 통과해야 하므로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 스터디도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다행히 저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정규직 시간선택제로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타 공공기관들과 다르게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오고 싶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시간선택제 중에서도 대졸 신입과 동급으로 대우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연수도 동등하게 해주며 공채 18기로서 회사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신입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만족부 CS기획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업무 또한 신입사원의 자세로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 직장생활

에서도 인복이 조금 많은 편이었는데 역시나 이번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상사를 만나게 되어 일과 가정의 두 마리 토끼를 열심히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두 아이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고 퇴근 후 아이가 마치는 시간에 맞춰 하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두 아이를 이전만큼 보살피 주지는 못하지만 다른 일터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이를 돌보는 시간도 많고 가정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사회진출을 다시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시간선택제의 문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추세로 이어진다면 2033년 국가재정 파산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창출과 저출산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저는 입사 후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까지 상승하고 가족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야 말로 최대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취업을 하며 느낀 점은 기회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2014년 ‘시간선택제’라는 제도가 도입될 당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기업과 공기업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회의 문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운 좋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제 주변에 친구들만 보아도 시간선택제를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자리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간선택제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고충과 아빠 엄마 육아휴직의 확대 필요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로서 아이가 아플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가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만약 도우미 이모님을 고용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비싼 것도 문제입니다. 기관을 다니다

보면 아이는 자주 앓을 수밖에 없는데 간혹 사소한 전염병이라도 걸리면 기관에서 조차 아이가 오기를 꺼려합니다. 전 현재 양가 부모님께 멀리 계시나 SOS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한 지인들 또한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고 맞벌이를 장려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점도 조금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책제안

아이 돌봄 무급휴가: 만 12세미만의 자녀가 질병 또는 기관에서 부모 참여 수업 등이 필요할 때 증거자료를 제출 한 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 여성을 만들지 않는 사회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확실히 36개월은 아이에게 온전히 사랑을 주는 것이 아이의 가치관 형성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사회에 나오는 사이코패스, 성격장애자와 같은 경우 어린 시절 사랑의 결핍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사기업도 원활하게 적용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아이의 가치관 형성은 추후 미래의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도 잘 키우고 경력단절도 만들지 않는 3년의 육아휴직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남성육아 휴직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북유럽의 스웨덴의 경우 어린자녀를 둔 부부는 누구나 부부합산 총 480일의 유급휴가를 가지며, 480일 중 아빠와 엄마는 각각 최소 90일을 사용해야하고, 390일 동안 월급의 약 8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사회와 정서적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강력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

습니다. 무늬만의 제도가 아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전 직장을 다녔을 당시 육아 휴직이 3년이었다면, 아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쉬움이 없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선택제로 재취업을 한 것도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말입니다. 시간선택제의 확대 및 활성화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강력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저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행복도가 높은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4

다시 시작하는, 선물 같은 날들

최○○/신용보증기금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살짝 눈 감았다가 뜨면 금방 끝나십니다. 지금 아버지 들어 가셨어요. 신장 적출하고 나면 바로 들어가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숨을 크게 들이 마시고 난 후 나는 눈을 떴습니다.

“우리 딸....”

더 이상의 말은 잊지 못하신 채 조용히 병실로 가셔서 두 분이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신장을 받은 불효녀입니다.

어떻게든 시기를 더 늦추려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관리를 한다고는 했지만 한번 나빠진 신장의 기능은 더 이상 좋아질 리 없었습니다. 점차 응급실에 드나드는 횟수가 늘어나며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수술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레 아버지와 나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조직이 맞아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몹쓸 딸내미 때문에 수술시켜 주려고 피우시던 담배도 끊으시고 바쁜 회사생활 중에도 틈틈이 운동을 하셨다던 아버지, 자식으로써 못 할 짓을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는 만성 신부전이었고, 작년에 신장이식을 받았습니다. 종종 장애인분들과는 다르게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아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내 몸 안에는 새 신장을 포함해 총 3개의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면역력을 필요로 하는 정상인

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새 신장을 살리기 위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약을 평생 복용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여러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서 정상인들보다는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과거는 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나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어준 우리 가족들이 있었고, 그런 값진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만 같았습니다.

그로 인해 몇 달이 지났으며 나는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회복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고 싶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정기적인 병원검진을 받아야 했으며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회사에 취업을 해서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곳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루 4시간만 근무를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있다는 걸 알려 주셨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고, 장애인이며 사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지원 가능했으며 주 5일 근무에 하루 4시간만 근무를 하면 되니 나머지 시간에 병원을 가거나 운동, 학업, 취미생활 등이 가능했습니다. 경쟁률도 높지만 이전에 일하셨던 분들도 모두 만족을 하셨다며 심지어 신용보증기금에 일하고 싶어 채용공고를 작년부터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놀랐습니다. 저에게도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너무 영광스러웠고, 감사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2의 인생을 신용보증기금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설레고, 두려웠지만 분명히 배울 점들이 많고, 좋은 경험으로 제가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의 출발은 너무 값진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본점에서 일을 한지도 어느덧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었던 업무들이 차츰 적응해가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실수투성이에 부족한 점이 많은 저는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몸이 적응이 되지 않았는지 출퇴근 시간만으로도 피곤함이 몰려왔었고, 피아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피아노를 칠 때 어려운 부분에서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는 일들의 과정일 뿐이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들은 오늘 일어난 일에 집중을 하고, 다시 내일 도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남들보다는 느릴 수 있지만 주어진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미처 몰랐었던 직장생활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배우는 것 외에도 주위 직원들의 다정한 말투와 상냥한 미소, 좋은 영향과 에너지를 받으며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가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내 실수도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소한 행동, 말 한마디, 표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시간 동안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며 배우고 익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선택제의 시간 활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취미로 하고 있었던 그림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운동도 병행하며 자기 관리도 할 수 있어 만족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으며 일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블라인드 · 직무능력중심 채용 | 청년인턴 | 고졸채용
지역인재 채용 | 시간선택제 일자리

2017년 12월 22일 인쇄

2017년 12월 29일 발행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 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인쇄 (주)상일 E&P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